

since 1995 제17회

세계는 부산으로, 부산은 세계로!!

부산국제관광전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Travel Fair

2014. 9. 12 (금) ▶ 9. 15 (월) BEXCO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이 9월 12일~15일(4일간) 해운대 벅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제관광전에는 45개국 240여 업체가 참가, 국내외 여행정보는 물론, 세계 음식페스티벌, 관광서비스경진대회, 국내외 민속공연 등이 열려 세계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으며 경품추첨도 있다.



사진 : 제16회 부산국제관광전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World Best Global Leader EUNSAN

이 세상보다 더 큰 은산의 꿈



대표이사 양재성

2014. 7. 20. 은산 경인터미널을 개장합니다.
대지 23,125 평 (76,312m²) 건평 12,138 평 (40,054m²)

“더 큰 사랑을 드립니다.”

은산! 물류운송 21년
은산의 역사는 고객님의 사랑과 함께 하였습니다.

양산, 신항만 녹산, 신항만 화전 컨테이너터미널에 이어
경인 터미널 개장으로 물류운송의 플랫폼을 완성하였습니다.

된다! 된다! 잘 된다! 더 잘된다!!!는 초 긍정적인 마인드로
고객의 미래가치를 운송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글로벌 종합물류 프론티어, 은산해운항공㈜

• AIR CARGO 해상화물 • AIR CARGO 항공화물 • WAREHOUSE 창고보관업 • HOUSEHOLD GOODS 이주화물 • INLAND TRANSPORTATION 내륙운송
• EXPORT PACKING SERVICE 수출 포장업 • I.C.L. CONSOLIDATION SERVICE LCL 화물 • PROJECT CARGO, HEAVY/BULK CARGO 프로젝트/특수화물

■ 서울 : 서울시 중구 소공동 21번지 한남빌딩 8층 Tel. 02)772-9966 Fax. 02)773-9969
■ 부산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71 87-5번지 해양빌딩 8층 Tel. 051)441-9966 Fax. 051)441-9969
■ 인천 : 인천광역시 미추동 870-3번지 Tel. 055)383-9966 Fax. 055)381-9969
■ 양산 : 양산시 양사구 중앙동 1707-2번지 Tel. 051)557-9966 Fax. 051)557-9969
■ 선남 : 선남시 선남구 선남동 559번지 Tel. 051)465-9966 Fax. 051)465-9969
■ 포항 : 포항시 남구 남동동 425-1번지 Tel. 053)362-9966 Fax. 053)362-9969
■ 중국 (천진) : 53-1, Wood Road, Hodi District, Tianjin, P.R.Chin Tel. +86-22-2282-6866 Fax. +86-22-2282-1188



쇼핑, 숙박, 식음료 등
가격할인
70~5%

Busan Grand Sale 2014

2014. 9. 12(금) ~ 11. 12(수) 62일간
해운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주요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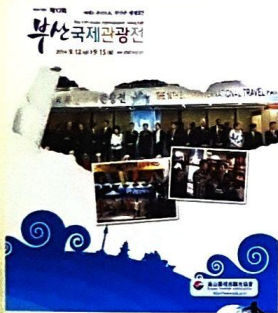
「부산관광그랜드세일」은 2014. 9. 12. ~ 11. 12. 사이에 부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쇼핑, 음식,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쇼핑 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의 문화체험 이벤트를 통해 더욱 즐거운 부산여행이 될 것입니다.

대 상 부산방문 내·외국인 관광객(쿠폰 소지자)
규 모 관광 및 쇼핑 관련업체(13년 75개 업체 3,838개 업소)
내 용 쇼핑, 숙박, 식음료 등 가격할인(70~5%)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후원

발행·편집인 이태섭
편집위원 손해식, 이광규, 김중규, 이해연,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희
취재기자 이호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4년 8월 2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등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림1동 58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사 동광동4가 18-8번지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l@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omoon.kr



표지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

- 05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 개최
- 06 부산시관광협회-나가사키현 친선교류회
- 07 부산 관광경찰 출범
- 08 신복도로 르네상스, 세계가 극찬
- 09 낙동강 생태탐방선, 옹호만 연안코르즈선 운항
- 10 부산국제영화제(BIFF) 포스터 발표
- 11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정체성 보전 조례규칙 개정
- 12 영도대교 2017년까지 '도개 전망대' 설치 추진
- 13 2014부산비엔날레 9월 20일 ~ 11월 22일까지 개최
- 14 10월, 축제 부산이 즐겁다
- 16 부산시, 아름다운 아간경관 구축사업 추진
- 17 시티투어 2층버스, 야경 시티투어 코스 운영
- 18 상반기 국내 입항 코르즈선 관광객 전년 대비 88.8% 증가
- 19 부산 고부가가치 명품관광콘텐츠 30대 과제 선정
- 20 국내 최대 물류기업 은산해운항공, 인천경인터미널 개장
- 21 부산 전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
- 22 부산의 바다와 산 · 강 천혜의 아간명소 이야기
- 24 부산 남항, 2018년까지 세계적 수상관광명소 만든다
- 25 市, 북항재개발지, 조선플랜트나 해양관광 개발이나 논란
- 26 해외여행시 '해외여행 보험' 가입은 필수
- 27 휴양형 주거시설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연내 처리될 듯
- 28 국제의료특별법 만들어 해외환자 年50만명 환자 유치
- 29 문화체육관광부, 중단체관광객 내년부터 온라인 비자발급 시행 방침
- 30 강진, 그곳에 가면...
- 33 기장은 장안리 하장안마을 느티나무 1300살 국내 최고령 神木
- 34 아름다운 녹색길 같이 걸어오!
- 36 칼럼 : 정부, 종합병원 내 숙박시설 설치허용 추진
- 38 칼럼 : 도심 생태관광지

부산관광 대축제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 개최

◆ 9.12~9.15(4일간) 벅스코에서 40개국 240여개 기관(업체)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외의 관광자원 소개,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관광업계 취업설명회, 세계음식페스티벌 등 다채롭게 마련
◆ '해외참가국 대사와의 만남' 이벤트를 통한 외국인과의 친밀감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비롯하여 부산관광그랜드세일기간과 연계하여 쇼핑, 숙박, 음식 등 할인혜택의시간도 가져

부산은 물론 전 세계의 관광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이 9월 12일부터 15일까지(4일간) 벅스코에서 40여개국 240여개 기관(업체)에서 430여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관광상품, 여행정보 등을 선보이게 된다.



제16회 부산국제관광전

부산국제관광전은 국내외 지자체, 관광업계 등에서 참여하여 관광자원소개, 관광정보교환, 관광홍보마케팅 등 관광교류 및 우호증진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부산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인바운드 관광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며 참가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 중 부산의 대형 쇼핑·관광 이벤트 일환으로 개최하는 부산관광그랜드세일 행사(2014.9.12~11.12)가 65개 업체 2천7백여개 업소에서 참여하게 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는 또 하나의 방문의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다.

개막식 당일 개최되는 부산관광그랜드세일의 주요 행사는 거리 퍼레이드를 비롯하여 공식행사, 경품추첨 등이 준비되어 있어 부산국제관광전의 축제 분위기를 더욱 더 고조시킬 예정이다.

부산국제관광전은 12일 오전 11시 부산지역 주요기관장을 비롯, 세계 각국의 대사 및 주한 관광청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관광영소를 빼놓이지 소개하는 '국내홍보관' △ 해외 40여개국의 색다른 문화와 관광지를 즐길 수 있는 '해외홍보관' △ 여행상담은 물론,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세계여행상품 판매관' △ 각종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광지식

정보교류관 △다양하고 특별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 등 전시행사가 마련된다.

그리고 부산지역 관광상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의 대형 아웃바운드여행사와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및 기타 관광업체 등과의 관광교류의 장인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를 통해 부

산관광자원 홍보는 물론, 부산의 주요관광상품개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 '부산 별천지를 담아라'를 주제로 재미와 감동이 있는 부산관광의 매력을 소개할 '제16회 부산관광 UCC 전국공모전' 입장작 상영 △ '제15회 부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입장작 전시 △ 인도·네팔·터키·일본·베트남 등 11개국의 이색적인 먹거리들이 전시 판매되는 '세계음식페스티벌' △ 크레딤 주주, 커피 바리스타, 카지노 딜러를 주제로 펼쳐지는 전국 고교 관광과 학생들의 열띤 경연 '관광서비서경진대회' △ 중국·일본·괌·인도네시아 등 '세계전통민속공연' 등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작년에도 이어 올해에도 '해외참가국 대사와의 만남'에서는 참가한 외국의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기념촬영 및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부산국제관광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일반 2,000원, 학생 1,000원이다. 15인 이상 단체와 부산국제관광전 홈페이지(www.biff.co.kr)를 방문해 무료초대권을 인쇄하거나 사전등록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유료입장객을 대상으로 항공권, 호텔숙박권 등 푸짐한 경품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 관광전의 열기를 더할 것으로 여겨진다.

부산시관광협회-나가사키현 친선교류회

부산시관광협회(회장-이태섭)와 나가사키현 장기현(長崎縣)지사 나가무라 호도(中村法道) 간 친선교류회가 지난 21일 시내 코모도호텔에서 회장단 친선교류회를 가졌다.

이태섭 회장은 지난 1988년 부산시관광협회와 나가사키현 관광연맹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양 지역의 우호증진과 국제교류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또한 올 3월에 부산시와 나가사키현이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명실공히 민·관이보다 능동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나가사키현 각 지역의 유명한 특산품을 회장단에게 각각 전달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지난 20일 오후 3시 부산롯데호텔에서 양 지역 기초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부산-나가사키현 기초지자체간의 교류증진을 위한 첫 상견례 자리로 '부산광역시구청 장군수협의회와 나가사키현 시장회와의 교류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이미 1994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영도구-쓰시마시와 2013년에 국제우호교류를 체결한 서구-사세보시 외에 양 지역 기초지자체간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과 나가사키현은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 회원지자체로 1992년부터 22년에 걸쳐 매년 한일 8개시도현 지사회의를 통해 관광·수산·환경·청소년 공동교류사업 및 행정교류 등 교류협력관계가 매우 돈독하며 2011년 미술관 교류협정, 2014년 우호협력도시체결·박물관 우호협정 등 관광·행정·문화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나가무라 호도 나가사키현지사 등 방문단 25명이 부산을 방문해 부산문화재단·부산관광협회와 '조선통신사 기록유산 유네스코 공동등재'와 관광분야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 바 있으며,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고, 방문취재단은 부산의 광명소인 부산시민공원, 황령산봉수대, 광안리, 남포역·자갈치시장 등을 두루 취재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산과 일본 자매·우호도시와는 역사적·전통적 우호·신뢰관계 속에서 다방면에서 교류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 및 2015년 한일 수교 50주년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나가사키현은 일본의 가장 서쪽인 규슈 북서부에 위치한 곳으로 인구 141만명, 부산의 4배 면적인 4,105km² 면적에 600여개의 섬이 소재하며 행정구역은 13시 8정, 현재 총생산 4조 2,822억엔으로 일본 내에서는 중소현이다.

현재 13개시로는 세계 최후 원목지로 비핵화정책을 주도하는 나가사키시와 네덜란드 재현 테마파크인 하우스텐보스가 소재한 사세보시, 한일 선린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행렬의 일본 첫 관문인 쓰시마시외에 시마바라·이사하야·오오무라·히라도·마츠우라·이키·코토우·사이카이·미나미시마바라시가 있다. 이들 지역은 에도시대 일본에서 유일하게 서양문화를 받아들여 해외 교류창구로 번성한 곳으로 이국적 정서와 아름다운 자연, 동서양의 문화를 접목한 독자적인 문화를 창출, 일본전통문화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어 능통 경찰 35명, 부산 관광경찰 출범 부산방문 외국인관광객 불편해소에 최선 다할 터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부산관광경찰대'가 출범했다.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6개 외국어 회화 능력을 갖춘 경찰관 35명으로 구성된 부산관광경찰대는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해운대해수욕장, 국제시장, 태종대, 범어사, 국제크루즈터미널 등 부산 관광영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돌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돕고 범죄예방과 기초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불법 콜밴 영업, 택시 바가지요금, 쇼핑 강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조성직 부산관광경찰대장은 "한 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80만명을 넘었고, 크루즈 관광객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머무르고 다시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평동 강통야시장 구간 110m에서 300m로 확대 부산시, 국제적 관광명소 만들기 적극적으로 나섰다



부산관광공사는 부평강통야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국제적인 명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역 여행사들도 전통시장을 핵심 테마로 한 관광상품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개장 이후 평일에는 하루 평균 2천~3천명, 주말에는 5천~7천명이 찾고 있다. 최근 소문이 나면서 부산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과 외국인의 야간 필수 관광코스가 되고 있다.

부산시가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보니 구간이 짧아 야시장 정취를 만끽하기에 아쉽다는 점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이에 야시장 구간을 확대하고 편의시설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또 야시장과 연계해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전통시장 프리카켓을

전국최초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야시장 구간을 현재 110m에서 300m로 3배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하는 구간에는 기존 야시장 매대 30대 외에 19대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상인회는 기존 자정까지 열었던 야시장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시와 상인회, 부평강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중국인관광객을 위해 붉은색 바탕에 황금색 글씨가 적힌 환영 플래카드 등을 내걸었다. 야시장 개장 시간에 진행되는 문화공연도 중국풍으로 대거 구성했다. 인터넷사이트와 SNS 등을 이용하는 젊은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부산을 상징하는 기념품과 먹거리 매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주로 백화점과 면세점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야시장을 비롯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 해 다소 놀랐다"면서 "이번 단체 방문을 계기로 야시장 문화에 다소 익숙한 중국과 동남아 등지의 관광객들에게 부산지역 전통시장의 상품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달동네 산복도로 르네상스, 세계가 극찬 개발 대신 공동체 복원, 낙후지역을 관광명소로

달동네로 불리던 부산 산복도로가 한 해 국내외 관광객 30만~40만 명이 찾아드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6·25전쟁 후 피란민들이 모여 형성한 산복도로가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살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동구 초량아바구길 같은 정감어린 마을로 되살아나면서 국내외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 같은 현상은 부산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만들기' 같은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친 결과다. 도시재생 사업은 낙후지역을 허물고 재개발하는 대신, 주민들과 함께 주거·경관·교통·복지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되살리는 부산형 창조도시 정책이다. 부산시는 2010년 '창조도시본부'를 신설,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부산 산복도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마을'(CNN), '미로 끝에 있는 예술마을'(르몽드)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활력 넘치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적 도시재생 모델"이라고 극찬했다.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 중구 영주동 산복도로에 설치한 주민복지형 모노레일 승강기

부산 산복도로, 모노레일 승강기가 오르락 내리락 영주동 디지털고 옆 70m 구간, 주민, 관광객들에 인기



부산 산복도로에 전국 첫 주민 복지형 모노레일 승강기가 중구 영주동 디지털고등학교 일대 가파른 계단 옆에 설치, 주민·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닌다.

이 일대는 경사가 급한 고지대로 주민들이 가파른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산복도로에 사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나들이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산복도로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도 힘들고 불편했던게 사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중구는 지난 2011년부터 '중구 오름길 만들기' 사업을 추진, 총 23억 원을 들여 길이 70m, 폭 6~8m의 모노레일 승강기를 설치했다.

전기의 힘으로 운행하는 이 승강기는 8인승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한다.

김은숙 중구청장은 "모노레일 승강기 설치로 고지대에 사시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어린이들의 보행환경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부산시가 벌이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연계해 중구 산복도로 고지대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 동구 초량동 168계단도 모노레일 승강기를 설치한다.

낙동강에는 생태탐방선, 용호만에는 연안크루즈선 운항



낙동강 생태탐방선

시는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리 33인승 생태탐방선을 마련했다. 속도는 시속 18km로 하루 2회 운행한다.

생태탐방선이 다니는 구간은 왕복 48km로, 2시간30분이 걸린다. 물금 선착장이 완공되면 운항 구간은 양산 원동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총 운항 거리는 왕복 66km에 이른다. 시는 부산관광공사를 탐방선 운영기관으로 정했다.

이용요금은 평시에는 성인 1만 원, 청소년·노인 7000원이다. 겨울에는 화명에서 물금까지만 운항하므로 성인 7000원, 청소년·노인 5000원이다. 을숙도 일대 낙동강 하구가 겨울

철 철새 도래지임을 고려한 결과다. 운영 인력은 선장, 기관사, 사무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4명이다. 단순히 보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객에게 낙동강의 생태와 역사, 문화 등을 설명한다. 월·화요일은 운항하지 않고 쉰다. 시는 내년엔 10억 원을 투입해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층 나아진 유람선 인프라를 갖게 된다.

낙동강 유람선 사업은 2012년 12월 부산발전연구원의 '낙동강 하천 유람선 및 수상레저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듬해 5월 부산·경남 현안 조정회의에 상정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탐방선 건조 계약을 체결해 지난달 선박을 인수해 등록했다. 또 시는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항을 계기로 오는 10월 구포, 엄곡 등 인근 여촌계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관광두레'를 조직할 방침이다.

게스트하우스 및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획물과 농산물 공동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또 용호만 연안크루즈는 당초 지난 5월 운항을 계획했지만, 선박 제작 지연 등으로 운항 개시일이 오는 10월로 미뤄졌다. 11월에는 2호선, 12월에는 3호선이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낙동강 하구 장림포구 일대 지역특성 살린 관광명소로 탈바꿈 낙동강 하구, 낙조 감상 할 공원 조성, 어묵박물관도 조성추진

사하구 장림포구(길이 650m, 폭 100m) 일대가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명소로 탈바꿈 된다. 사하구는 '장림포구 명소화'를 위해 포구 일대의 공원과 포장마차 등 판매·휴게시설을 도입하는 한편 어민 공동작업장을 조성할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포구 일대의 준설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설물 건립에 착수했다. 준공은 내년 말께이며, 사업비는 총 65억 원이 투입된다. 사하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대포해수욕장을 찾는 부산과 경남지역 관광객의 발걸음을 장림포구로 돌리겠다는 복안이다.

포구 상부에는 유명한 낙동강 하구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이 지역 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김과 생선 등 수산물을 판매하는 포장마차 공간을 마련할 계획

이다. 포장마차에는 인근 어묵 단지 업체들이 만든 맛깔나는 어묵도 판매된다.

사하구가 포구 명소화 사업에 돌입하면서 인근 어묵 업체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특히 장림포구 인근의 어묵 8개 업체가 모여 결성한 부산어묵 전락사업추진단은 사하구와 연계해 '어묵 박물관' 조성도 추진한다.

포구에서 작업하는 어민들을 위한 시설도 마련한다. 포구를 따라 늘어난 어민 작업장을 'ㄷ' 형태의 시설물에 깔끔하게 정돈한다. 또 장림 유수지 사업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등 일대 주민들의 주거와 작업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사하구 관계자는 포구 주변을 수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포스터 발표

이혁진 작가 작품바탕 디자인, 영화와 관객의 어울림 표현

올해 부산국제영화제(BIFF)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다. BIFF 조직위원회는 이혁진 작가의 'Emotion 1/4 Y.R.G.W'를 원화로 디자인한 제19회 BIFF 공식 포스터(사진)를 9일 발표했다. 이 작품은 레진 표면에 섬유질을 덧대어 만든 판에 그림을 그린 '그림조각'으로, 가로와 세로로 얽힌 조각들이 영화와 관객의 어울림을 표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IPTV 사업시작

19회 BIFF 10월 2일~11일까지 영화의전당, 해운대 일원, 남포동 등에서 개최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IPTV 사업을 시작한다. (사)BIFF조직위원회는 최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IPTV 사업 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업은 BIFF 자회사 CAC엔터테인먼트가 맡는다. IPTV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청자가 안방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언제든지 골라볼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BIFF는 IPTV 사업을 통해 다양한 해외 예술영화를 국내에 소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시작한 BIFF 케이블 채널 개국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반면, IPTV 사업은 판권만 구매하면 곧바로 서비스에 들어간다. BIFF 사

무국은 "BIFF 케이블 채널 사업은 영화 판권 확보와 함께 하드웨어 투자 비용이 들어 장기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대신 BIFF가 다양한 예술영화를 국내에 소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IPTV 사업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BIFF가 IPTV 사업을 통해 부수적으로 노릴 효과는 또 있다. 아시아필름마켓 활성화이다. BIFF가 아시아 각국의 영화 판권을 많이 구매하면 자연스럽게 아시아필름마켓으로 몰려드는 영화인이 늘어나 BIFF의 영향력 확대와 아시아필름마켓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19회를 맞는 BIFF는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영화의전당과 해운대 일원, 남포동 등지에서 열린다.

이효영 기자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정체성 보전 조례규칙 개정 관 주도 개발보다 다양한 전문가 참여 협의과정 거쳐 개발해야

부산 사하구가 감천문화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시행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개정, 감천문화마을이 가진 독특한 정체성을 지키기위한 시행규칙을 만들고 마을을 개발하거나 정비할 때 주민과 전문가의 협의를 거칠 것을 명시했다.

사하구는 지난해 3월 제정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곧 들어설 비즈니스 센터와 체험주택 운영 방침을 넣었다. 시행규칙에는 마을공동체 지원과 운영방안, 감천문화마을의 전반적인 개발 방향이 담겼다.

시행규칙은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감천문화마을의 주택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을 새 건축물이나 상점의 간판에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색채 가이드라인은 감천문화마을의 주택 경관과 어울리는 10가지 색상을 지정해 그 안에서 색채를 배합하도록 정했다. 공공시설물의 설치, 각종 공사 인허가, 도시 계획, 건물철거 등 마을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

위는 사하구의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천문화마을 전체적인 색과 어울리는 간판과 건물을 디자인해야 한다. 공공시설물이나 주민의 주택 인테리어 등도 모두 가이드라인이 정한 틀 안에서 시행하거나 사하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또 사하구청 주도의 개발보다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과정을 거쳐 개발한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감천문화마을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미술가, 건축가, 마을 활동가, 주민 대표, 교수 등 11명이 활동하도록 했다. 이들은 감천문화마을 정체성 보전과 개발의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낸다.

사하구 관계자는 "부산 도시재생의 선구자격인 감천문화마을의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마을 특성을 살리고 정체성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수영구, 유·무형 문화·관광 이야기길 도시 재생사업 펼친다 수영사적공원-팔도시장-좌수영성 지역 자산 관광벨트화

수영구가 좌수영성 등 구내 산재한 유·무형 문화·관광 자산을 잇는 이야기길을 통해 도시 재생사업을 펼친다. '응답하라 수영 팔도 이야기-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15~2017년 3년간 수영구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팔도시장 등 좌수영성 일원의 지역 자산을 관광벨트화하는 작업이다. 약 5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된다.

수영구 좌수영성 일대는 과거 성터와 조선시대 후기 옛 길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수영야류, 좌수영어방놀이 등 무형문화재의 기반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또 광안리 어방축제와 부산불꽃축제, 광안리 생선회 축제 등 수영강과 바다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을 수영강 등 인근 자연공원과 연계해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는데, 좌수영성 일대의 문화

재보호구역을 둘러싼 인근 중심시가지가 쇠퇴하고 지역 고유 자산에 대한 정체성과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영구는 이번 사업이 다양한 유·무형 자산 간 연계성을 높이고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활성화하는 등 수영성 일대에 지역 브랜드를 형성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영강변 테마파크 조성을 수영 팔도장터길, 좌수영성 이야기길 거리를 연계 짓는 것은 물론 수영 재창조 아카데미를 개최해 지역 주민과 상인의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증가, 지역공동체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영구가 도시 재생사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무용 리포터

영도대교 2017년까지 '도개 전망대' 설치 추진 공동어시장 노후시설 개선, 관광체험장으로 현대화 시킨다



관광명소가 된 영도대교에 도개 장면을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가 추진된다. 부산시는 영도대교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담은 '남항 개발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시는 '해양수산부 제2차(2010~2019년)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영도대교 전망대 설치 계획을 반영키로 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2017년까지 전망대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망대는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 등 영도대교

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형 전광판과 파란민 동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고, 포토존도 만들 계획"이라며 "산, 바다 등 천혜의 자연과 영도대교, 자갈치시장 등 남항 일원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면 원도심 일대 관광은 더욱 활기를 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항 개발 계획에 따르면 시는 내년 하반기 취항을 목표로 유람선 운항을 추진한다. 내년 6월까지 선착장과 터미널을 만들고, 유람선 사업자를 유치한다.

또 자갈치의 비위생적인 판매환경, 협소한 보행로, 노후한 물양장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시푸드 테마파크와 홍보관을 만드는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도 2018년 완공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공동어시장에는 비위생적인 위판 환경과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관광과 체험, 소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대화사업이 오는 2018년을 완공 목표로 추진된다.

한·중·일 건축가회 영도대교 관광자원화 모색 워크숍 개최

한·중·일 3국 건축가, 건축학도가 머리를 맞대고 영도대교 관광자원화 모색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3개국의 40세 미만 청년 건축가와 건축학과 대학원생 등 26명이 모여 영도대교 인근 봉래동 물양장~보세창고 구간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한·중·일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한 관광자원을 주제로 해 함께 모여 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5개팀으로 나눠 영도구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살린 관광 관련 아이디어와 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중국과 일본 건축가들은 영도대교 정보와 포털사이트 지도를 이용해 영도대교 주변의 지리적 특성을 사전에 살핀 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영도구 측은 지난해 10월 영도대교 도개 기능 회복 이

후 관광객들은 급증하고 있지만 영도구 내 관광 인프라 시설이 미흡해 관광객 유입이 적은 상황을 해소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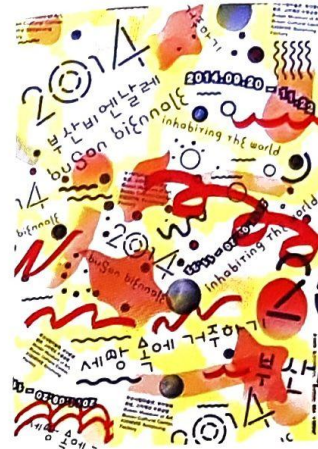
봉래동 물양장~보세창고 구간은 영도대교에 얽힌 역사와 남항 주변 영도구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지역이지만 열악한 주변 환경과 문화관광 시설로 인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영도구 측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영도대교와 바지선, 보세창고 등을 이용한 관광자원화와 함께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축가들은 영도대교의 역사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건축 아이디어를 제출하며, 영도구 측은 타당성을 검토해 실제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영도구청 관계자는 "제안된 아이디어는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4부산비엔날레 9월 20일~11월 22일까지 개최



개 의 특별전, 다양한 학술행사, 국제교류행사, 시민참여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2014 부산비엔날레를 9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64일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문화회관 등지에서 연다고 밝혔다.

'세상 속에 거주하기'(Inhabiting the World)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본 전시, 2개의 특별전, 다양한 학술행사, 국제교류행사, 시민참여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올리비에 케플렐(Olivier Kaepelin) 감독이 기획하는 본 전시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본 전시와 함께 개최되는 특별전은 '비엔날레 아카이브전'과 '아시아 큐레토리얼전'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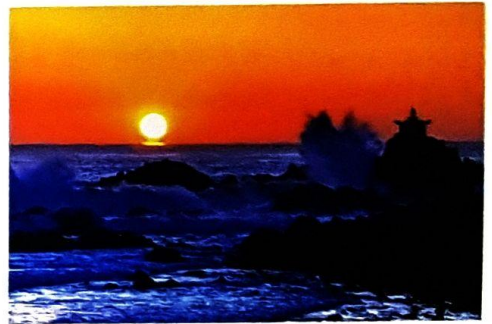
학술행사에는 각종 강연과 함께 현장워크숍, 공칭회, 2014 부산비엔날레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패널 디스커션, 국제평론가협회(AICA) 총회 등이 마련된다. 아시아비엔날레 대표자 회의와 아시아 미술잡지 편집장들이 모여 아시아 미술에 대해 토론하는 아시아 편집장 회의도 열린다.

'2014부산비엔날레'의 포스터(사진)가 공개됐다. 디자이너 이푸로니가 만든 이 포스터는 '세상 속에 거주하기'라는 전시 주제와 '부산'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물, 유기성, 가변성, 유연성 등을 키워드로 곡선과 비정형적인 패턴을 활용해 2014부산비엔날레를 상징한다.

부산시, 부산의 '그 순간 그 장면' 9곳 관광명소 지정

부산시는 그 순간 그 장면 9곳을 관광명소로 지정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그 순간 그 장면'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시가 문화관광홈페이지에서 명소 추천 이벤트를 실시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9곳은 ▷오랑대 일출 ▷영도다리 도개식 ▷아미산 전망대 일출 ▷광안대교 조영소 ▷대대포 꿈의 낙조분수 ▷황령산 봉수대 파노라마 야경 ▷거미섬(나암) 모세의 기적 ▷유치환 우체통에서 본 부산항대교 야경 ▷태종대 태종사 수국이다.

기장군 기장을 연하리에 있는 오랑대의 일출은 기암절벽에 부딪히는 파도와 떠오르는 해가 장관을 이룬다. 지난해 11월 47년 만에 부활한 영도대교 도개식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광안대교 발광다이오드(LED)와 레이저쇼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고, 남구 오륙도 인근의 비위생인 거미섬은 한 달에 두 번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땅이 생겨 '부산판 모세의 기적'이



라고 불린다.

시는 이를 사진 촬영 명소로 알리고, 기념 엽서로 제작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과 재방문 기회를 높일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10월 축제
부산이 즐겁다



**보수동책방골목축제 · 구포나루대축제 · 광안리 생선회축제
자갈치축제 · 낙동강 갈대꽃축제 · 동래읍성역사축제 · 고등어축제 등**

부산이 10월 한 달간 풍성한 가을축제를 펼친다. 부산국 제영화제 · 부산비엔날레 · 부산불꽃축제 같은 대형축제 부터 보수동책방골목축제 · 부산자갈치축제 · 고등어축 제 · 동래읍성역사축제 등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보고 즐 기고 참여할 지역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보수동책방골목축제

보수동책방골목축제는 5~7일 보수동책방골목 일원과 보수 동책방골목문화관에서 열린다. '보수동 책방골목에서 문화를 만나다'를 주제로 책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500원 데 이, 책 관련 스탬프 만들고 찍어보기, 책갈피 만들기, 공예체 험, 캐리커처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함께 한다.
※문의 : 보수동책방골목변영회(241-6988)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대축제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대축제가 5~7일 북구 화명생태공 원과 낙동강 일원에서 펼쳐진다. '만남 · 소통 · 어울림'을 주제 로 내 고장 예술인 작품전,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 낙동강 노을 음악회, 댄스 힙합 경연대회 등을 비롯해 창작 연 날리 기, 낙동강 생태체험, 소망축동 달기, 카누 · 카약 · 보트 체험, 도전 낙동강을 건너라, 황포돛배 체험 등 시민 참여 행사가 있 따른다. 특히 역사 · 문화 재현 프로그램인 보부상 행렬과 니루

터 주막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문의 : (사)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
(309-2031~3 · log.naver.com/nakdongfest)

부산자갈치축제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를 외치는 자갈치 아지매의 흥겨운 목소리.' 전국 최대, 최고 명성의 수산물 축제인 부산자갈치축 제가 1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1~14일 자갈치시장 · 용두산공 원 · 광복로 등에서 열린다. '생선회 맛 천국, 자갈치'를 주제 로 거리행진, 축하공연, 장어 · 문어 잡고 이어달리기, 범선 체 험, 수산물 짬뽕 경매 같은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문의 : 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243-9363 · www.ijagalchi.co.kr)

동래읍성역사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는 12~14일 동래읍성 북문광장 · 동래문 화회관 · 온천장 등에서 열린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를 재현하는 뮤지컬, 세 가닥 동래줄다리기 재현 등 볼거리와 즐 길거리가 풍성하다. 옛날 장터를 재현한 동래장터에서는 조선 시대 화폐모양을 본떠 만든 동전을 구입해 동래파전, 막걸리를 맛 볼 수 있다. 시민이 직접 동래아류탈, 양반탈, 말뚝이탈, 할



부산 10월 주요 축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축 제	기 간	장 소
보수동책방골목축제	5~7일	보수동책방골목 ·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일원
구포나루대축제	5~7일	화명생태공원 · 낙동강 일원
광안리 생선회축제	7일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조방스타일 이골리네 축제	10~13일	자유시장 · 조방거리 특설무대
부산자갈치축제	11~14일	자갈치시장 · 용두산공원 광복로 일원
강서 낙동강 갈대꽃축제	12~13일	맥도생태공원
동래읍성역사축제	12~14일	동래읍성 북문광장 · 동래문화회관 · 온천장 일원
가장봉장어축제	13~14일	가장군 일광면 칠암항 일원
40계단 문화축제	17일	중구 중앙동 40계단 특설무대
찰마천우축제	18~21일	가장군 칠마면 장전천 들녘
UN평화대축전	25~27일	UN기념공원 · 부산문화회관
부산고등어축제	25~29일	송도해수욕장 · 부산공등어시장 일원
낙동강하구 에코문화축제	26~28일	감천문화마을 · 들쭉드 일원

미탈 등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각 종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도 풍성하다.
※문의 : 동래구 문화공보과(550-4852 · estival.dongnae.go.kr)

부산고등어축제

부산고등어축제는 25~29일 송도해수욕장과 부산공등어시 장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25일 고등어 관련 가장행렬인 길 놀이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고등어 요리 콘서트, 영화 '파 닥파닥' 상영, 서구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이어진다. 부산공동 어시장 체험, 고등어 짬뽕 경매, 맨손으로 고등어 잡기, 도전 고등어 골든벨, 고등어 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함께 한다.
※문의 : 서구 문화공보과(240-4061~5 · ww.busangde.kr)

낙동강하구 에코문화축제

낙동강하구 에코문화축제가 26~28일 감천문화마을과 을숙 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감천문화마을에서는 '골목길축제를 주

제로 퓨전국악공연, 7080포크뮤직, 색소폰 · 아코디언 연주, 초청가수 공연 등을 마련한다. 골목길 여행, 창작 · 전통문화 체험, 감내어울터 미니공연, 아빠는 골목대장 등 이색 프로그 램이 열리고 예술작가와 주민이 함께 제작한 작품을 전시 · 판 매 · 체험하는 문화예술장터도 들어선다.
※문의 : 사하구 창조도시기획단(220-5911)

광안리 생선회축제, 40계단 문화축제 등...

광안리 생선회축제가 7일 부터 광안리해수욕장 아와상설무 대와 백사장 일원에서 열린다. 동구 조방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방스타일 이골리네 축제'는 10일부터 나흘간 자유시 장과 조방거리 일원에서 개최한다. 가장봉장어축제는 13~14 일 가장군 일광면 칠암항 일원에서, 40계단 문화축제는 17일 오후 3시 중구 중앙동 40계단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초청가수 공연, 40계단 가요제, 전통음식 무료시식회, 경품추첨 등 다채 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한다.

이효영 기자

상반기 국내 입항 크루즈선 관광객 전년도 비해 88.8% 증가 부산 65% 증가한 12만 4천 명, 대부분 중국 관광객



국내 상반기 크루즈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전년도에 비해 거의 배 가량 늘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산, 제주 등 국내 항만으로 들어온 크루즈선 관광객은 44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만 8천 명)보다 8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만별로 제주항은 24만 5천 명으로 작년보다 101.8% 증가했고 부산항 12만 4천 명, 인천항 5만 1천 명으로 각각 약 65%, 73% 증가했다. 또 광양항은 지난해 실적이 없었으나, 올해 2만 7천 명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크루즈 여객이 급증한 것은 프린세스 크루즈사의 사파이어 프린세스호(11만 5천 875)가 올해부터 한~중 노선 등 동북아 시장에 신규 취항한데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마리너 오브 더 시즈호(13만 8천 279)와 크스타 크루즈의 코스

타 아틀란티카호(8만 5천 619)의 기항 횟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에 들어오는 크루즈 여객의 80% 이상이 중국 관광객으로 씬씀이가 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코스타 아틀란티카호 선상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크루즈관광, 의료관광 융합한 의료관광시대 열었다

부산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제주를 거쳐 부산으로 오는 국제크루즈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에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크루즈의료관광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크루즈 선상 의료관광설명회는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중국인 승객 2천여명을 대상으로 부산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뛰어난 관광인프라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세계 3대 크루즈 선사 중 하나인 코스타 크루즈사의 '코스타 아틀란티카호'는 8만5천619, 길이 292m의 대형 호화 크루즈선. 9층 1천57객실에 여객 정원 2천680명, 승무원 897명 등 총 정원이 3천577명이 지난 20일 부산에 도착 21일까지 머물렀다.

부산 의료인인과 공연단 등으로 구성된 '부산 의료관광 추진단'은 지난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오는 동안 부산의료관광 설명회, 크루즈 승객과 부산 명인의 만남, 한류공연, 뷰티공연, 크루즈 의료관광 상품 허당 판

매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중국 동정여행사를 통해 현지에서 크루즈 의료관광 상품을 사전구매한 승객들은 부산에 도착한 후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을 방문해 간단한 치료와 쇼핑, 부산시내 투어를 하는 의료관광을 체험했다.

부산의 크루즈 의료관광은 새로운 크루즈 기항지 프로그램으로 여행업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6월 코스타크루즈,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등 대형선사와 중국 국제여행사(CTIS) 등 중국 대형여행사를 대상으로 '부산 크루즈 의료관광 팸투어'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에 이어 다음달 부산을 찾는 13만급 대형 호화 크루즈 '마리너 오브 시즈호'에서 제2차 크루즈 의료관광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2차 설명회는 중국 최대 여행사인 중국국제여행사(CTIS)와 함께 진행해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크루즈 의료관광 시장이 성장하면 앞으로 부산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고부가가치 명품관광콘텐츠 30대 과제 선정 부산국제영화제, 외국인 선상 카지노, 세계 불꽃축제 등



부산관광발전을 위한 30가지 관광컨텐츠 과제가 선정됐다.

부산시는 최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부산 명품관광 콘텐츠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고부가가치 융·복합형 관광컨텐츠 3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진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시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발은 해양관광 등 18개 관광유형을 설정하고 각계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115개 과제 중 3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소개된 30개 과제는 부산관광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컨텐츠 과제에는 >해운대-광안리 해양레저복합지구 조성 >4계절 부산해양축제 집중 육성 >외국인 전

용 크루즈 선상 카지노 >해운대 해양 애프터투어 로드 조성 >세계 요트경기장 조성과 요트 관광상품 개발 >가장 여초체험 >부산 등대투어 루트 개발과 배후 관광지 조성 >해운대 해양문화아트 밸리 조성 >7대 해수욕장 테마화 등 해양 관련 콘텐츠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권역별 명품거리수와 면세점 조성 >부산 브리지 불꽃축제 투어 >센텀-벡스코 비즈니스 복합타운 조성 >센텀 한류테마·영화거리 조성 >울속도 에코스트림 생태체험과 낙동강·땃목축제 >서면 뷰티타운 조성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컨텐츠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관광컨텐츠 30개 과제가 확정되는 대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중·장·단기 과제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

국내 최대 물류기업 은산해운항공, 인천경인터미널 개장



은산해운항공은 지난달 인천 서구 오류동 경인터미널 개장식을 가졌다. 사진: 은산해운항공 제공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은산해운항공(주) (대표이사 양재생)이 수도권 물류시장 개척에 나서기 위해 지난달 경인터미널 개장식을 가졌다. 인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경인터미널은 대지면적 7만 6천여㎡, 창고면적 4만㎡의 규모의 컨테이너 야드(CY), 일반화물 조작장(CFS), 위험물 창고, 관리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보세창고는 방재, 방화, 전산 입출고 관리 시스템 등 최첨단 보안 안전 설비를 마련하여 여러 상황의 재해로부터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건축했다.

복합운송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은산해운항공은 아라뱃길에

위치한 경인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원스톱 종합물류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은산해운항공과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은산수출포장(주), 동서로술(주)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산해운항공의 수도권 진출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1993년 불과 5명으로 출발한 은산해운항공은 현재 임직원 350여 명의 국내 최대 물류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은산해운항공은 2002년 양산터미널 개장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부산신항만 녹산터미널을, 2011년에는 부산신항만 화전터미널을 개장했다. 2009년에는 종합물류기업인증을 획득했고, 지난해엔 AEO(성실무역업체)인증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물류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 한국해양대에 발전기금을 쾌척하는 등 왕성한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양재생 대표는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물론 한 분야에 고집스럽게 매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류기업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이는 임직원들이 항상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손석식 편집위원

부산! 전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14 베스트 그 곳'에 선정돼

네티즌이 뽑은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로 부산이 선정됐다. 부산시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14 베스트 그 곳'에 선정돼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사업으로 전개한 '베스트 그 곳'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대표 관광영상을 추천받아 네티즌 투표 점수 60%, 여행전문자문위원 40% 참여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5월12일부터 26일까지 총 21개 후보지역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부산을 비롯해 포천시와 정



읍시, 무주군, 해남군, 산청군, 고양시, 대구, 인제군 등 9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별로 6개의 스토리텔링형 기사를 발굴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와 '베스트 그 곳' 페이지도 운영한다. 관광과 관련한 지역의 주요 행사들을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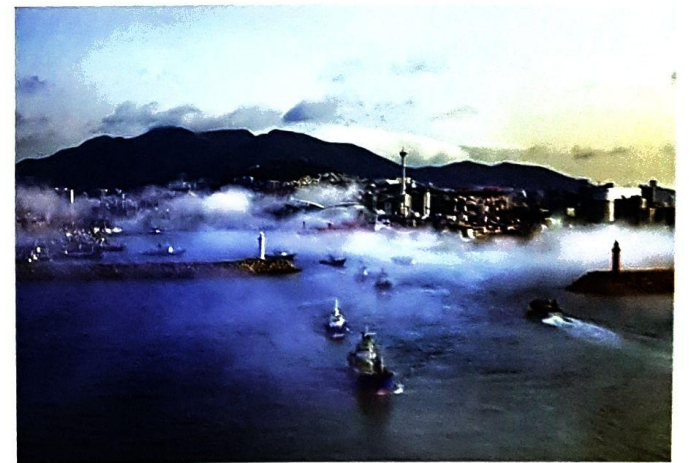
모션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1년 간 여행전문 기자와 작가, 블로거, 대학생 기자단을 활용, 다양한 콘텐츠와 공사 홈페이지, SNS 채널로 '베스트 그 곳'을 홍보한다. 부산시는 외지 관광객들의 부산 방문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5회 부산관광사진 공모전 대상 김홍철 씨 '출항'

부산시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시지회 주관으로 시행한 '제15회 부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의 입선작 91편을 선정 발표했다.

대상작인 '출항'은 남항에서 어선이 출항하는 장면을 잡아낸 작품으로 예술성이 다른 작품에 비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심술련 씨의 '부산항대교 야경', 특별상은 김유중 씨의 '해운대강강술래'는 강강술래와 달집놀이 야경 사진이 뽑혔다.



김해공항, 사상 첫 1천만명 시대 가시권에 가덕 신공항 건설 서둘러야 할 때

올 상반기 부산 김해국제공항의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김해공항 이용객은 504만명으로 이추세라면 연말쯤 사상 처음 1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가 국제선 청사를 내년까지 확장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돌아서면 바로 포화상태를 맞을 전망이다. 이미 수송한계를 넘어선 김해국제공항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가덕신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김해공항 출입국 승객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최대

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했다. 모두 503만9천176명이다. 항공 수요 증가는 부산~제주간 국내선과 중국 등의 국제선이용객 급증에 힘입은 바 크다.

국내선은 270만명을 수송, 6.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213만명을 훌쩍 넘는 233만명을 기록했다.



부산의 바다와 산·강 천혜의 야간명소 이야기

광안대교, 동래읍성, 영도대교, 산복도로, 영화의 전당, 북항대교등

부산의 야경이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바다와 산 그리고 강 등 천혜의 자연풍광에 옛 도심과 신도시 풍경까지 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이다. 이런 부산이 '밤'까지 휘어잡겠다고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있다.

여러 야경명소 중에서도 광안대교가 으뜸이다. 전국에서도 야경하면 손꼽히는 명물 광안대교는 최근 새로운 발광다이오드(LED)로 '조명'을 갈아입었다.

발광다이오드(LED)는 다양한 색깔과 오묘한 느낌이 어우러지면서 화려함과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광안대교는 평소에는 해변 쪽과 바다 쪽 모두 움직임이 거의 없는 기본조명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맞춰 '메인 색'이 빛을 낸다. 하지만 해변 쪽은 특정시간에 연출조명이 진행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연출조명은 해변 가로등에 설치된 음악 전용 스피커 54개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광안대교의 경관조명이 함께 어우러지며 다채롭고 아름다운 야경콘텐츠를 선사한다.

동래읍성

부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적 중 하나인 동래읍성도 지난해 하반기 야간 경관조명을 입혔다. 동래읍성 복원과 주변 성곽, 북장대, 인생문 등은 전체적으로 은은하면서도 정밀한 이미지를 덧입어 낮에 볼 때와는 색다른 느낌이다. 성곽은 달빛처럼 은은하고, 북문은 힘 있고 장엄하게, 또 북장대와 서장대, 백세의 계단 등은 서정적인 경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북문에 서면 양쪽으로 펼쳐진 성곽이 보이는데 성곽이 조명을 받아 마치 커다란 새가 날개를 편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주말을 이용해 가보려고 한다면 오후 4시쯤 도착, 인근에 있

는 북천박물관을 비롯해 동래읍성역사관, 장영실과학동산을 둘러본 뒤 해가 진 다음 야경을 즐기는 일정도 좋다. 자기용을 이용한다면 북천박물관 옆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경관조명 시간은 9~4월의 경우 오후 7시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단, 동래읍성역사축제 기간(10월 11~13일)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총 4시간30분간 가동한다. 5~8월은 오후 8시부터 밤10시까지 운영된다.

영도다리·동삼동 터미널

영도다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제도개'가 이뤄지면서 과거보다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첫 운영된 부평야시장과 함께 영도다리 인근 야경은 또다른 즐길거리로 떠올랐다. 낮에는 한국전쟁 당시 아련한 추억과 아픔을 되새기고 역사지킴이 전통신장 분위기에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된다. 하지만 밤에는 낮과는 사뭇 다른 전경을 제공한다.

부산대교 위에 서서 희미한 조명을 받는 영도다리와 뒤로 보이는 도심 불빛을 바라보며 해운대 마린시티나 광안대교 등과는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 또 부산대교를 건너 롯데백화점 광복점 맞은편의 물양장 부지 쪽에서 남포동을 바라보면 용두산공원과 롯데백화점 등 도심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북항대교까지 보이는 산복도로

부산 동구 초량동 산복도로 일대 골목투어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이곳을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낮에는 골목골목마다 다른 느낌, 다른 이야기를 안고 있어 골목을 찾아 맨드는 재미와, 최근 마무리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즐기는 재



미가 매력이다.

밤에는 부산 북항과 원도심 일대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다. 낮에는 풍광이 아름다운 바다와 북항의 역동적인 모습, 그리고 삼의 굴곡이 묻어나는 이미지라면, 밤에는 검은색 바다 위에 주택과 건물 등 다양한 불빛들이 수를 놓고 있는 형상이다. 여기에 북항대교(공사 중) 불빛까지 가세해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준다.

주요 야경포인트는 산복도로인 '망양로'를 따라 중구 방향으로 가다보면 부산과학고 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하늘주차장'이다. 바다와 도심 야경, 북항 조명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명소다.

이 외 지난해 말 문을 연 종합체육센터 '까꼬막'도 새로운 야경명소로 꼽힌다. 지상 2층 건물인 까꼬막은 2층에 정자 형태의 전망대가 설치되어 편의성을 높였다. 정규 운영시간은 오후 7시까지이지만 손님이 있으면 마감시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가뭏만하다.

영화의 전당

야경명소로 당연히 자리잡은 곳이다.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마린시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야경거리다. 이 장소는 수영강변에 마련된 덕으로, 야경 관광객과 출사객들이 손꼽는 장소다. 영화의전당의 형이상적인 건물 형태에다 축구장 2.5배 크기인 4만2000개의 LED 조명이 달려 독특한 형상을 구현하는 모습에 눈앞에서 펼쳐진다.

영화의 전당과 인근 빌딩들의 불빛이 강 수면에 반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곳의 장점이다. 오른쪽으로는 마린시

티와 광안대교의 환상적인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광안대교 조명은 여러 각도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즐길 수 있어 인기있는 야경포인트"라며 "영화의전당 맞은편은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의전당과 마린시티, 광안대교, 마린시티의 야경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어 최근 야경객들이 선호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시티투어버스로 부산 야경을

부산 야경을 한 번에 편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 부산시티투어 야경코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코스는 부산역에서 출발해 광안리해수욕장~해운대해수욕장~달맞이~광안대교~금련산 청소년수련원을 거쳐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온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광안대교 야간조명을 즐긴 뒤 해운대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에 마린시티와 해운대 인근 야경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황령산 봉수대가 가까운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에서 부산 전체 야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다. 10~4월에는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2시간 30분 가량 걸린다. 5~9월에는 같은 노선으로 오후 7시30분부터 10시까지 운행된다.

야경코스는 부산역광장 마리랑호텔 앞의 부산역 승강장에서만 출발하며 예약이 필수다. 또 일반 시티투어버스와 달리 티켓 구입 후 1회만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부산시티투어 홈페이지(www.cittourbusan.com)에서 가능하며 예약 때 티켓은 운전기사로부터 받으면 된다. 현장 구매는 예약자 탑승 후 잔여 좌석이 있을 때에만 선착순 구입할 수 있다. 단, 월요일은 휴무일이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운행된다.

김무용 리포터



부산 남항, 2018년까지 세계적 수산관광명소 만든다

내년 하반기부터 남항유람선 운항, 관광객 편의 위해 보행데크 등 설치



부산 남항 일대가 세계인이 즐겨찾는 수산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사진은 부산시청에서 열린 2014부산 수산정책 설명회 모습.)

부산 남항 일대가 수산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부산시는 오는 2018년까지 5천200억원을 들여 남항 일원을 리모델링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친수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수산관광명소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남항 유람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도개기 회복 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영도대교와 자갈치 시장을 연계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남항에 유람선을 띄워 해상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람선 선

착장과 터미널을 조성하고 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해 지능형 CCTV 영상처리시스템과 항만교통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자갈치 일대도 세계적 수산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18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장 주변의 비위생적인 판매환경과 협소한 보행환경, 물양장을 깔끔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자갈치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대형관광버스 등이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이미 지난 11일 문을 열었고, 도심형 체험관광위판장인 부산시수협위판장은 내년 9월, 잠수기수협위판장은 올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3천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간 20만명이 넘는 수산물을 거래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지상 3층 규모의 복합건물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쯤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8년 완공계획으로 새 건물에는 수산물류센터, 가공센터, 유통·체험·교육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보행데크와 저운위판, 자동선별 시스템도 함께 설치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6천400억원을 들여 '자갈치시장~감천항' 일대를 '동북아 수산식품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市, 북항재개발지, 조선플랜트나 해양관광 개발이나 논란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 해양경제특구구역 구성도(부산발전연구원 제공)

북항의 기능을 해경특구 해양플랜트 중심으로 개발할지, 북항 재개발사업지와 연계해 해양관광 중심으로 육성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시비 10억 원으로 부산해경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벌여 이 같은 논란과 반대논리를 잠재우고 명확한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이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 달 계약해 내년 8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해경특구는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과 관련한 산업을 집적·융복합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해양연관산업이란 해양 산업과 전후방 산업관계에 있거나 해양플랜트, 선박금융처럼 융복합화를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산업을 말한다.

부산발전연구원이 현안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내놓은 '부산해경특구 구상안'을 보면 북항 컨테이너 부두를 중심으로 영도·중·동·남구 등 북항과 인접한 원도심 일원 934만㎡에 글로벌 해양플랜트 모듈제조기업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해 해양플랜트가 들어오면 인근 해양관광과 친수공간 중심의 북항재개발사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북항재개발사업 2단계 조기 착수외도 배제된다.

시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경특구에 해양플랜트 업체가 들어왔을 때 고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산출해 다른 산업군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개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대포항, 해양관광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 추진

부산 다대포항이 국가어항 지정 40년 만에 확 바뀐다. 주변 관광지 연계한 해양관광과 수산유통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다기능 항구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부산시는 넓고 오래된 다대포항 개발을 위해 최근 해양수산부의 '10항 10색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에 응모했다.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차평가인 사업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정부는 올해부터 개발 대상 국가어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다대포항을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공모에 심혈을 기울였다.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다대포항개발에 총 사업비 1천34억 원을 들인다. 개발은 3단계로 추진할 계획. 1단계는 오는 2019년까지 어항기능 강화를 위한 물양장 신설, 위판장 확장 등을 추진하고, 관광·레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해안산책로, 특화거리, 해안소공원, 낚시배 선착장, 전망대 등을 조성한다. 2단계는 2021년까지 친수공간과 경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3단계는 2022년부터 복합관광기반 조성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다대포항 전경

2018년 향로표지총회 부산 유치 본격 나섰다

경제적파급효과, 부산관광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VTS(해상교통관제센터), e-내비게이션, 등대 같은 해사안 전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국제회의의 유치가 부산이 나섰다. 부산시는 오는 2018년 5월 한국 개최가 확정된 국제항로표지총회(IALA) 19차 총회 유치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에는 80여 개국 1000명 이상의 정부 관계자와 향로표지 및 해사안전산업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해양수도' 부산의 향만 인프라와 전시컨벤션, 관광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항만물류관계자는 "북항 재개발, 신항 인프라, 동상동 해양클러스터 같은 향만시설과 벡스코 오디토리움 등 전시컨

벤션시설에 부산항·감천문화마을·갈매길 투어, 댄스스테이, 시립예술단 공연, 시장 주재 만찬 등과 같은 관광을 융합해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출, 총회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개최희망도시 신청을 받은 뒤 평가를 거쳐 이달 안에 선정할 계획이다.

IALA 총회를 유치하면 시가 동상동 해양클러스터에 추진 중인 '해양 ICT(정보통신기술) 비즈니스 벨트'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2020년까지 국제해사기구(IMO) 산하에 e-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전 세계 선박의 운항정보를 통합 관리할 e-내비게이션 종합정보센터와 표준화 지원센터 및 국제인증센터를 유치,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해외여행시 '해외여행 보험' 가입은 필수

해외여행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상해 또는 질병에 따라 발생한 치료비,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또 여행 중 파손, 도난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의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품목별로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행기 납치나 테러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휴대품 가운데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은 보상 대상 휴대품에서 제외되며 도난이 아닌 분실로 인한 손해도 보상 받지 못한다.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이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다 발생한 사

고로 인한 손실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보장이 다양한데 비해 해외여행보험료는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다. 가입자의 연령, 해외여행 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몇 만 원대면 손해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가 외국에서 상해나 질병 등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입 보험사의 콜센터나 현지 우 리말 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즉각 연락해야 신속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구입한 경우 진단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휴대품 도난 시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공항 수하물을 도난당하게 되면 공항 안내소에서, 호텔에서 도난을 당했을 경우엔 프론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받아 줘야 한다.

부산시,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 눈 앞 역사·스토리텔링으로 새 관광자원 개발 발굴해야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는 부산의 관광자원은 바다뿐이라는 선입견을 뒤집고, 숨겨진 문화 관광 자원을 꾸준히 발굴하는 한편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역사 문화 이야기가 흐르는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양한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정책의 전문화를 위한 부산관광공사 설립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하면 부산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둔 동력이다. 부산불꽃축제, 바다축제 등을 부산의 매력적인 대표 행사로 육성했다. 부산산 복도도 르네상스 등을 통한 도심재생사업도 관광과 접목하는 발상의 전환도 부산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도록 이끄는 데 일조했다. 부산만이 품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역



부산불꽃축제는 세계인이 즐기는 세계적인 문공축제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성장했다.

사적 자산을 발굴하는 한편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부산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문화적 자산들을 발굴해낸 것도 결코 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휴양형 주거시설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연내 처리될 듯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 위한 필수 법안

내수 활성화를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하면서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안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 전국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와 연석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해 주목된다.

문체부와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최근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문체부와 김 의원은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 개최 전에 관광단지가 있는 전국 36개 지자체·사업시행자와 함께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관광단지 지역구에 포함된 여야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도 그동안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던 야당

의원도 상당수가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밝게하고 있다.

이 법안은 100만㎡ 이상인 관광단지 내 지원시설의 하나로 가용토지면적의 5% 이내에서 단독 또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5월 동부산관광단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맞물려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인 투자는 물론 국내 투자를 촉진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필수법안이다.

문체부는 관광시설 내 주거시설이 도입되면 주거시설 300호 건설 시 3200억 원의 신규 투자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이 법안이 통과하면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4075억 원의 투자와 5338명의 고용 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허용해야 부산시 등 전국 22개 관광단지 시행자 관광진흥법 개정 촉구

부산시와 전국 22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들이 원활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 관광단지 안에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등 시설을 다양화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조속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전국에서 관광단지 사업을 시행 중인 22개 기관이 공동명의로 관광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2010년 18대 국회 때부터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처리가 지연되면서 결국 국회 폐회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해 1월 김도읍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해당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



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규모는 관광단지 전체 가용 토지면적의 5% 이내로 하고, 주택의 종류는 단독 또는 4층 이하의 공동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한다. 전국의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들은 현행법상 관광단지 내 시설을 공공편익 숙박 등 장기 운영시설로 제한되는 바람에 투자자 유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관광산업의 트렌드가 4계절 정주·체류형으로 변하고 있어 복합형 관광단지 개발과 야간 및 비수기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도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효영 기자

국제의료특별법 만들어 해외환자 年50만명 환자 유치

올 하반기 제주에 국내 첫 외국계 투자개발형 병원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의료산업 육성 정책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또 '의료 한류(韓流)'를 일으키기 위해 '국제의료 특별법'을 만들고 2017년까지 한 해 5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내년 상반기에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와 국내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해외 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의료특허를 가진 의과대학들이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 의료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허용하고, 건강 기능식품 개발 등 의료기관 자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도 추진해 병원을 옮기는 환자가 기존 병원에서 받은 각종 진료정보를 다른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의료산업 선진화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환영했다. 국제협력처 관계자는 "한국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환자 관리가 세계 정상 수준인 만큼 해외 진출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재주)법인 설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텔(의료관광호텔) 설립 시 모(母)법인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 · 메디텔과 병원 간 시설분리 기준 완화 ·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 연구개발로 확대
투자개발형 외국 병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의사 10%이상 고용 등 규제가 강했던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발형 병원의 규제를 제주 수준으로 완화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과대학에 의료특허를 활용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광고 허용 ·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
의료정보 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동의하에 병원 간 환자 진료정보 전송 시스템 마련

김무용 리포터

문화체육관광부, 中단체관광객 내년부터 온라인 비자발급 시행 방침,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부산찾을 듯

정부는 관광산업의 투자걸림돌을 없애 국내외 자본을 유치, 2017년까지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 명까지 늘려 경기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복안을 세웠다. 싱가포르 태국 대만 일본 등이 중국인을 영두에 둔 각종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내년 상반기 온라인 비자발급제도 시행 방침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432만 명이며 올해는 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동안 주중 한국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고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도 3~5일이나 됐다.

정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손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온라인 비자 발급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자 발급 기간이 2일 이내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TV 채널도 신설된다. 정부는 현재 영어로 방송되는 아리랑TV의 채널을 하나 더 늘려 2015년부터 중국어 방송을 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최소 분양 인원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외국인 5명이 공동 투

자해야 콘도 1실을 분양받을 수 있어 투자이민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1명에게 콘도 1실을 분양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 등지에 이차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과 제주 등의 대중교통 도착 시스템과 도로 표지판에 중국어를 병기한다.

복합리조트, 국제테마파크 추진

30여 년 만에 한강을 종합 재개발해 프랑스 파리 센 강 같은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려는 것도 유케(중국인 관광객)를 영두에 둔 정책이다. 정부는 또 유커를 포함한 외국인들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 일대에 국제테마파크 건립을 재추진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는 복합리조트를 짓는 등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인천 영종도에 미국과 중국이 합작한 LOCZ가 카지노 사전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 드림 아일랜드 등 다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제주에는 신화역사공원이라는 복합리조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진일보를 개설했고 고도제한 심의를 빨리 해주는 등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줄 예정이다.

김대현 리포터

부산시 의료관광기획단 내달 발족, 운영키로 부산시관광협회, 벅스코, 병원협회 등 10대 기관 참여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의료관광기획단을 발족,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4급을 단장으로, 5급을 팀장으로 둘 계획이다. 가칭 의료관광기획팀과 의료관광프로젝트1팀, 의료관광프로젝트2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팀은 각종 기획 업무와 국내 의료관광을 담당하고, 프로젝트1팀은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사업과 메디컬타운, 의료관광호텔 사업을 전담할 예정이다.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사업은 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3개 지역에 나눠 추진한다. 메디컬타운 사업은 동부산관광단지외 명지국제신도시 내 빈 땅을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관광호텔 사업은 현재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다.

프로젝트2팀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업무였던 국외 거점 센터 사업을 전개한다. 국외 환자 송출 협의와 외국과의 의

료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 의사 10명을 강동병원과 고신대병원, 부민병원, 동아대병원에 파견해 90일간 단기 연수를 받도록 했다.

시는 의료관광 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관광산업육성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했다. 관광협회와 벅스코, 병원협회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부산에서 의료관광을 하는 외국인인 연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일 만큼 의료관광이 미래 부산의 먹거리를 책임질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2만1000명이 의료관광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시는 2020년 의료관광객 20만 명을 목표로 '세계 3대 의료관광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무용 리포터

김해공항 부산~중국 정기노선 많이 늘어

하반기에 김해공항 부산~중국 노선이 많이 늘어난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에어부산이 9월 1일부터 부산~엔지(延吉) 노선에 주 2회(월·금) 운항한다. 엔지는 백두산을 찾는 여행객들이 꼭 거쳐야 하는 노선이다.

또 9월 2일부터는 부산~장자제(張家界) 노선에도 신규 취항한다. 엔지노선과 마찬가지로 주2회(화·토) 운항한다. 장자제는 기암괴석이 많아서 중국의 무릉도원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 많은 관광지이다.

에어부산은 최근까지 엔지와 장자제 노선을 부정기편으

로 운항해왔다. 제주항공도 9월 중에 부산~스자좡(石家莊) 노선에 주3회 취항한다.

하반기 들어 김해공항에 중국 정기노선이 늘어난 것은 지난 5월 말 국토해양부가 한·중 항공회담을 거쳐 저비용 항공사 등에 중국 신규여객 노선을 배분했기 때문이다. 중국 남방항공도 지난달 부산~엔지·광저우 정기노선을 각각 개설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상반기 일부 노선이 운항을 중단했지만 하반기 들어 중국 노선을 시작으로 정기편 운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 후기 목민심서, 흠흠심서 등 학문의 흐름에 꽃을 피운 다산 정약용 유배지,
그리고 찬란한 청자문화 고려청자문화를 꽃피운 강진!

강진, 그곳에 가면...

강진군은 강진읍을 기점으로 북으로는 영암군, 동으로는 장흥군, 서로는 해남군, 남으로는 마량에 연결된다. 도암만은 조수 간만의 차와 간석지 등으로 인해서 배가 드나들기 힘들지만 남동단(南東端)에 있는 마량은 해상교통의 요지가 되고 있다.

찬란한 청자문화를 꽃피운 곳으로 가마터는 물론 유배지로서의 자취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곳곳에 불교 유적이 있다. 문화재는 2003년 현재 국보 1점, 보물 8점, 사적 3점, 천연기념물 5점 등 17점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11점, 기념물 9점, 민속자료 2점, 문화재자료 3점 등 25점의 도지정문화재가 있다.

도암면 만덕리(萬德里)에 있는 다산초당(茶山草堂)은 신유박해(辛酉迫害) 이후 19년간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한 정약용(丁若鏞)이 살던 집으로, 목민심서(牧民心書)를 비롯한 다산의 많은 저술이 이 집에서 이루어졌다. '茶山草堂'이라는 현판은 추사(秋史) 김정희 친필이며, 건물은 사적 제 107호로 지정되어 있다.

성전면 월하리(月下里)에 있는 무위사극락전(無爲寺極樂殿)은 가구구조(架枓構造)에 특색이 있는 1476년의 건물로 국보 제13호 지정되어 있고, 그 벽에 그려진 벽화도 같은 해의 작품으로 유명하다. 성전면 월남리(月南里)의 월남사지(月南寺址)에는 백제탑의 양식을 본뜬 보물 제 298호 모전석탑(模殿石塔)과 고려시대의 조형(造型)을 볼 수 있는 거대한 귀부(龜趺)가 있다.

강진읍 남성리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라는 시로 유명한 김영랑 생가가 있다. 영랑생가는 전라남도기념물 제89호 8·15광복 이전까지 이곳에서 60여 편의 시를 남겼다.

병영면 삼인리(三仁里)에 있는 비자나무와 백련사(白蓮寺)의 동백나무 숲은 각각 천연기념물 제39호와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구면 사당리(沙堂里)에 있는 푸조나무는 수령 500년이 넘는 노목(老木)으로 민속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35호로 지정되어 있다.



강진 고려청자도요지 _ 찬란한 청자문화를 꽃피웠던 가마터는 전국적으로 발견된 400여기의 가마터 중 200여기의 가마터가 강진에 있다. 이는 해상교통의 발달과 아울러 타 지역에 비해 태토, 연료, 수질, 기후 등 여건이 적합했기 때문이다.



다산초당 _ 목민심서 등을 저술한 다산 정약용은 신유박해 이후 19년의 유배생활중 10년을 이곳 초당에서 머물렀다. 그의 학문을 흠모하여 모여든 제자들과 당대의 사상가, 고승들과 심 없는 토론과 학문적 교류를 나누며 백성의 삶을 위한 정치와 제도를 뒷받침하는 사상을 완성하였다.

강진 고려청자도요지

강진군 대구면 일대는 우리 나라 중세미술을 대표하는 고려청자의 생산지다. 1963년 사적 제68호로 지정된 대구 고려청자 도요지는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5백여년간 집단적으로 청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9개 마을에 180여 개소의 가마터가 부포되어 있으며, 약 18만 여평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고려청자는 한국문화예술사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것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자예술품으로 비색상감무늬는 기술과 아름다움의 극치로 표현되고 있으며 인공을 떠난 천공의 경지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청자는 중국에서 5~6세기경부터 생산했으며, 우리나라는 8~9세기경 생산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런 시기에 강진에서는 20km 떨어진 청해진에서 중국과 무역을 활발히 전개한 장보고대사의 활동의 영향을 받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에서 생산을 시작하여 14C 쇠퇴기까지 고려 500년 동안 대구면 정수사에서 미산까지 6km의 산하에서 집단적으로 청자를 생산했다.

우리나라 국보, 보물급 청자중 80%가 강진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세계 여러 곳에 귀중품으로 보존되어 있는 명품들 대부분이 강진의 작품들이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400여기의 옛 가마터중 200여기의 가마터가 강진에 현존하고 있는 만큼 청자의 집산지로 강진이 청자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점은 해상교통의 발달과 다른 지방에 비하여 태토, 연료, 수질, 기후 등 여건이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다산초당

본디 초가집이었을 건물은 다산의 사상을 흠모하는 후세 사람들에 의해 기와집으로 다시 지어졌지만 60년을 지낸 건물의 모습은 여유로운 세월의 흐름을 담고 단아하게 자리잡고 있다. 당시 이단의 사상으로 배척되었던 천주교에 몰든 죄인으로 몰려 무려 19년의 유배생활을 하였던 다산은 그중 10년의 기간을 이곳에 머무르며 조선 후기, 문화의 오지였을 국토의 끝자락에 학문의 꽃을 피웠다. 그의 학문을 흠모하여 모여든 제자들과 당대의 사상가, 고승들과 심 없는 토론과 학문적 교류를 나누며 백성의 삶을 위한 정치와 제도를 뒷받침하는 사상을 완성하였다.

학문을 연마하며 다산이 즐겼던 유일한 즐거움은 유난히 차나무가 많았던 만덕산의 향기로움을 다기에 담아내는 것이었다. 자신의 호마저 차의 언덕(茶山)이라 칭할 정도로 차를 사랑하였던 그는 술임을 태워 찻물을 끓였던 마당바위와 만덕산의 맑은 기운을 담은 물 웅덩이를 만들고 정석(丁石)이라 새겨 넣었다. 백련사의 혜장선사와 차를 나누며 깊은 학문의 경지를 토론하였을 그림 같은 모습을 다산초당의 아름다움 속에 비추어 본다.

사의제 (의향동)

군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 봉영마을에는 뒷산우뚝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다산 4대 성지 중 한 곳인 사의제(성의, 향동, 용모, 언어 4가지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쳐하는 집)라는 뜻은 1801년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와서 조그마한 골방을 거처로 삼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교육과 학문연구에 매진한 곳이다. 할 가꾸어진 정갈한 가운데 연못에는 잠자는 듯한 수련이 참 곱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데도 장독대 옆 뒷밭에는 쑥갓, 상추, 고추가 심어져 있고 뒤쪽으로 돌아가면 넓직한 잔디밭 한켠에는 백일홍이 맞아 준다. 그리고 당시 원래 주막집이었던 곳이라 술병들과 있는 할머니 조각이 눈앞에 클로즈업된다.

뿌리길

도암면에서 위치한 주차장에서 다산 초당을 한발한발 오르다 보면 두충나무 숲 오솔길에 자상으로 들어난 소나무 뿌리길이 있다. 다산의 이 뿌리길은 실학의 이상과 꿈을 펼치지 못하고 유배와서 이 뿌리길을 무수히 오르내렸을 다산 정약응의 통렬함을 보는듯 해서 마음이 저민다.

백련사 (만덕사)

다산초당에서 백련사까지 이르는 길 양옆에는 동백나무 집단 서식지다. 이 오솔길이 다산이 백련사 해장선사와 교류하던 길이다. 사천왕문없이 만경루를 통해 들어가는 백련사는 고려후기 8국사를 배출하고 조선시대 8대사를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최초의 민간결사운동인 백련운동의 장소로 민중불교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하다. 절암마당에서 내려다보면 멀리 강진만이 내려다 보인다.

영랑생가

군청 뒤쪽에는 '모란이 피기까지' 의시로 유명한 영랑생가가 있다. '북의 소월, 남의 영랑' 이란 말이 보여주듯 구수한 남도 사투리로 현대 서정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민족 서정 시인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가 원형대로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영랑의 시훈이 살아 숨쉬고 있다.

김봉오 btbusan@hanmail.net



사의제_성의, 향동, 용모, 언어 4가지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쳐하는 집



뿌리길_지상으로 들어난 소나무 뿌리길, 다산은 실학의 이상과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 뿌리길을 수없이 오르내렸을 다산을 생각하니 마음이 저민다



백련사_고려후기 8국사를 배출하고 조선시대 8대사를 배출한 이곳에서 다산과 해장선사가 교류하던 곳



영랑생가_ '모란이 피기까지' 현대 서정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민족서정시인 영랑 김윤식 선생 생가가 원형대로 보존돼 있다.

'그곳에 가면' 1300살 국내 최고령 神木 느티나무가 있다

100년을 채 살지 못하고 그 전도 후도 보지 못하는 우리앞에 1천년의 시간이 서 있다.

신라 문무왕이 심었다는 전설... 매년 음력 1월·6월 당산제 지내

부산 기장을 장안리 하장안마을 느티나무, 나무의 나이는 1천300살이다.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이 느티나무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 문무왕(626~681년)이 심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새천년을 앞둔 1999년 산림청지정 밀레니엄 나무가 바로 장안리 느티나무다.

이 느티나무는 신목(神木)이다. 소원을 들어 주며 마을을 지켜 주는 보호수로 떠받든다. 나무 아래 할매신 제당에선 매년 음력 1월 14일과 6월 14일 당산제를 지낸다. 봄 이파리가 동쪽에서 먼저 나면 동쪽 들찬 농사가 풍년이고 서쪽이면 서쪽 농사가 풍년이란 전설은 나무를 더욱 그윽하게 한다. 느티나무는 정자나무로 불리기도 한다.

'100년을 채 살지 못하고 그 전도 후도 보지 못하는 우리앞에 1천년의 시간이 서 있다.' 오래된 것은 사람을 숙연하게 한다. 하물며 한국 최고의 나무 앞에선, 쉬 들뜨고 쉬 바뀌는 우리네 감성을 내려 심사에 매칠 놓듯 장안리 느티나무는 묵직하게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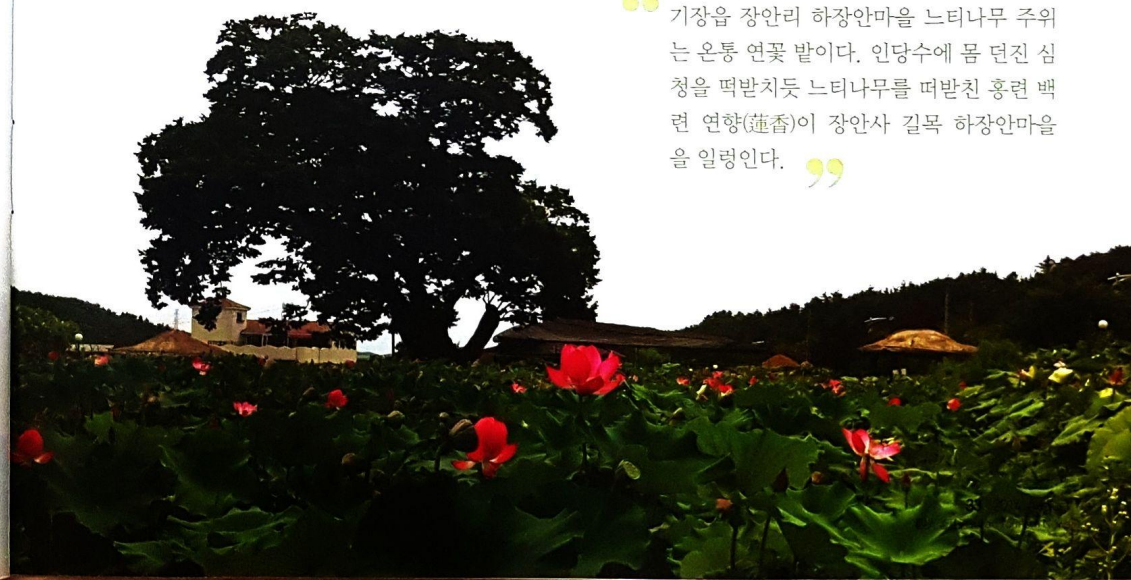
느티나무 주위는 온통 연꽃 밭이다. 인당수에 몸 던진 심청을 떠받치듯 느티나무를 떠받친 흥련 백련 연향(蓮香)이 장안사 길목 하장안마을을 일렁인다.

느티나무가 있는 장안리는 상장안과 하장안을 아우른 지명이다. 상장안 장안사는 천년고찰이다. 신라 문무왕 때 지은 장안사에는 보물이 많다. 대웅전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간물인 대웅전은 국가가 지정한 보물이고 석가영산회상도, 석조석가삼존십육나한상, 석조지장시왕상, 명부전과 명부전지장보살 등등은 부산이 지정한 보물이다. 느티나무를 보러 갈 것 같으면 장안사 순례는 필수.

대중교통은 기장시장에서 한 시간 간격 마을버스 9번 종점이 장안사이다. 느티나무 탐방은 하장안에서 내리면 된다. 하장안 직전 정류소는 기룡. 여유가 있다면 기룡마을 '장안제비(長安堤碑)'를 찾는 것도 좋겠다.

김봉오 btbusan@hanmail.net

“기장을 장안리 하장안마을 느티나무 주위는 온통 연꽃 밭이다. 인당수에 몸 던진 심청을 떠받치듯 느티나무를 떠받친 흥련 백련 연향(蓮香)이 장안사 길목 하장안마을을 일렁인다.”





아름다운 녹색길 같이 걸어요!

동래읍성지 순례길

동래읍성지는 조선시대 동래부의 행정중심지를 둘러싸고 있었던 읍성이다. 충렬사 뒷산에서 마안산을 거쳐 동래항과 뒷산까지의 구릉지와 현재의 동래 시가지 중심지역인 평탄지를 일부 포함하는 지세에 전형적인 평산성(平山城) 형식으로 쌓았다. 산성과 평지성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어 역사의 산교육장이 되고 있다.
문의전화 : 051)550-4122

대신공원산책로

1968년 2월 21일 대신공원이란 이름으로 일반인이 즐기는 중앙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900년 구덕산과 엄광산의 계곡에 2곳의 수원지를 축조하면서 삼나무·편백·벗꽃나무 등의 울창한 숲이 조성돼 있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부산포해전에서 큰 성과를 거둔 충무공을 기리는 영모비가 세워져 있다.
문의전화 : 051)240-4535

낙동강 제방독길

낙동강제방을 시민공원화하여 산책인들에게 정서함양과 향토애를 고취하기 위해 1992년 조경으로 철쭉동산 등을 조성하고 시비를 간립하였다. 그렇게 세워진 시비는 구포대교와 낙동대교 사이의 강서측 제방이 되는데, 금수현 노래비와 이은상 시비는 1992년 2월에, 배재항 시비는 1992년 7월에, 조지훈, 박목월, 이주홍 시비는 8월에 세워졌다.
문의전화 : 051)304-7501

금정산 등산로

금정산은 부산을 진호하는 주산이다. 부산의 산세는 금정산에서 출발하여 뻗어 나가고 있다. 금정산 산 이름의 유래는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금산 유래한다. 백양산은 금정산에서 상학산을 거쳐 남쪽 사상지역으로 이어진다. 이산의 이름은 신라시대 고찰이었던 백양사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지도에는 선암산으로 나와있다. 금정산 백양산 중턱을 연결하여 천경관으로 건강테마코스이다.
문의전화 : 051)304-7501

천마산등산로(천마산 10리길)

서구 남부민동과 사하구 감천동의 경계에 솟아 있는 산으로 「동래부지」에는 석성산이라 기록되어 있는 산이다. 석성산에는 봉수대가 있었는데 「경상도지리지」에 「석성봉화대가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황령산 봉화대를 바라보며, 서쪽 110리 거리에 김해 봉화대를 바라본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상에는 체육공원이 조성돼 있으며 천마산 조각공원이 자연과의 조화가 아름다워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움을 준다. 문의전화 : 051)240-4535

중리산책로

중리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도심속에 숨어있는 은백색의 바다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부산 중심가인 남포동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 쉽게 찾을 수가 있어 도심 속의 휴식처로 각광 받는 곳이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작은 공원도 만날 수 있다. 간단한 채비로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문의전화 : 051)415-1001

장산 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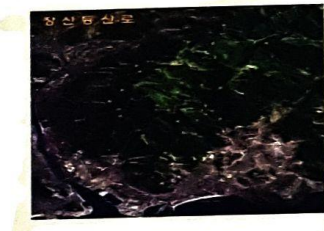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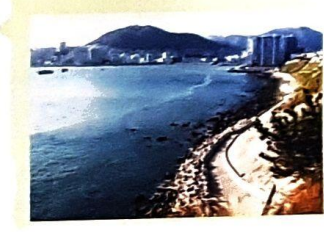
장산은 해발 634m로 부산에서 금정산(801m) 다음으로 높은 산으로 옛날 주변에 장산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장산 등산로는 해운대 구 반여동, 재송동, 우동, 좌동, 폭포사, 신시가지까지 연결되어 있어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용이하며, 산행코스가 많아 어느쪽에서 출발해도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 올수 있으며 정상에는 역사군락이 이루고 있으며 정상에서 바라보는 바다풍경이 일품이다. 문의전화 : 051)749-4081

엄광산 등산로(서대신동 꽃마을-내원정사-엄광산 정상)

엄광산은 동대신동의 북쪽에 위치하여 서구와 부산진구(개금동), 동구(좌천동)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엄광산은 1995년 그 이름을 되찾기 전까지는 고원견산(高遠見山)으로 불려졌다. 고원견산이란 명칭은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산의 정상에 올라서면 대한해협을 지나 멀리 대마도까지 바라볼 수 있다. 수목원, 목석원예관이 개관되면서 서부산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원 및 체험활동의 장으로 크게 호응받고 있다. 문의전화 : 051)240-4535

승학산 등산로

승학산(해발 496m)은 부산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산으로 고려말 무학대사가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산세를 살폈는데 이곳에 오니 산세가 준엄하고 기세가 높아 마치 학이 나는 듯 하다가 승학산(乘鶴山)이란 이름이 붙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동아대학교 뒤로 올라 승학산 정상을 거쳐 서대신동 꽃마을-구덕산-구봉산-수정산으로 이르는 등산코스는 부산산세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등산코스다. 문의전화 : 051)220-4061



정부, 의료관광객 종합병원 내 숙박시설 설치허용 추진

의료관광 MICE와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혀

한국 의료기술 수준 높지만 하드웨어 부족 공사 의료관광사업단 7개 기획 사업 발표

정부가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종합병원 부지 안에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8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총 61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전략 관광산업 집중 육성 차원에서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 본격화 할 방침이다. 의료관광은 MICE와 함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외래객 방문을 촉진하고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사업=신성장동력 중 하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시장이 태동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의료관광은 관광뿐 아니라 의료 업계 및 거대 자본 그리고 민간 등이 얽혀 있어 단순히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산업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

의료관광이란 무엇인가?

의료관광은 기본적으로 <의료+관광>이 결합된 개념을 뜻한다. 외래객들의 방문 목적이 관광이나 휴식이 아니라 의료가 되는 것.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인 만큼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됐다.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비싼 서구 지역 및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 러시아 등의 신흥시장에서 퀄리티 높은 의료 서비스와 휴양을 동시에 체험하고자 동남아시아를 찾는 것이 대표적인 모델이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각 국이 목적지로서 우세했다면 최근 들어 한국이 남다른 기술력과 서비스 그리고 한류를 활용한 테마 상품 등 경쟁력을 앞세워 조

금씩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관광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부가 힘을 실어주면서 다양한 상품 출시와 고객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시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많은 편이다.

한국 의료기술 수준은 세계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강세를 보이는 것은 성형, 피부미용 등 외모 혹은 뷰티쪽과 관련된 기술. 물론 암 치료나 화상 등 외과적인 수술에서도 역량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단 동남아 인기 국가들이 의료와 휴양이 한 번에 연결되는 복합 리조트나 병원+호텔 등 탄탄한 인프라와 통역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데 반해 국내 관광시장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기반이 부족하다.

국내 의료관광 산업 현황

의료관광 및 의료관광객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정부다. 정부는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또 호텔업 내에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한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연환자 1,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또는 실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 업체로 마지노선을 잡았다. 영리 병원과 의료민영화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속속 발표하는 모습이다.

올해부터 의료기관들의 부대사업(여행·관광업, 숙박업 등)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환자 병상비율 규제 완화, 외국인 밀집 지역 광고 허용, 해외 진출 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투자자 모집, 병원 간 인수·합병(M&A)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각종 논란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시장을 개척하는 이유는 높은 경제적 창출 효과에 있다. 관련업계는 '의료관광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 지속 확대 될 것'이라며 "지난 2004년 400억 달러에서 2012년 1,000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13년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약 92억 달러로 추정 된다. 향후 3년간

26.5% 성장할 것"이라고 가치를 설명했다.

의료관광 마케팅 기본 방향 '의료+한류'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은 최근 한국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마케팅 플랜을 홍보하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사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의료관광 마케팅 핵심은 '의료+Alpha'로 풀이된다. 공사는 동 설명회에서 의료관광시장과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상품은 결국 성장 할 수 밖에 없다는 배경을 밝혔다.

먼저 의학발달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로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이로 인해 건강수명 관리 및 성형 붐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원격 건강관리, 원격 의료관광객 모니터링, U-헬스 산업, 스마트병원 솔루션도입 등 정보 기술의 발달도 한 몫을 더한다. 또 한국인의 '따뜻한 정' 문화가 무료시술을 통한 '나눔의료관광' 사업으로 가시화 되거나 의료 외 한류, 미식, 테마, 명품여행 등 고객들의 니즈가 실질적으로 충족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결과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는 "세계 최고 기술이지만 합리적 가격으로 중증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경쟁력이다. 한국은 간이식 성공률 96%를 자랑하고 줄기세포, 암, 불임, 관절, 소아성장장애 치료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심장병 치료 비용은 미국의 1/3 수준일 정도로 저렴하다"며 덧붙여 설명했다. 주요 타깃은 역시 중국이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중국의 성형수술건수는 약 219만건으로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3의 성형대국으로 올라섰다. 한류인기와 함께 피부·성형 등 의료관광이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주요 목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4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 7대 기획 사업

1. 의료관광 통합 허브 플랫폼 구축

의료기관, 유치업체 동반성장 및 한국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합 시스템

- 1단계 (상반기) 홍보 기능, 마이크로 사이트, 상품등록/예약 시스템 구축
- 2단계 (하반기) 양방향 마케팅/메이커스 구현 및 결제/정산 시스템 도입

2. 의료관광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불법 유치업체, 비가시요금, 의료사고 발생 등 의료관광 위기 요인 관리

- 의료관광객 배상보험 상품 및 시스템 개발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협업을 통한 의료관광객 의료분쟁 대응체계 개선
- 지역별 의료관광 안내센터 연계 불만 접수 및 위기 요인 모니터링 강화

3. 관광중심의 고부가 의료관광상품 개발 확대

관광산업 등 관련분야 파급효과가 큰 경승한자 및 일반관광객 대상 의료관광 활성화

- 경승/엘니오 중심의 관광 체험형 문화융성 의료관광 상품
- 크루즈/MICE 연계 글로벌 의료관광 상품 개발
- 의료관광 클러스터 등 사법지역 특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지원
- 의료관광 상품공모전 및 한국의료관광 마케팅 대상 등 실시
- 일반여행업계의 의료관광사업 참여 및 상품화 지원을 통한 신도 모델 창출

4.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지원

각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특화형 의료관광객 유치 거점 육성

- 사법 지역/지자체 선정 공모사업
- 선정 지역 특화사업 아이템 개발 및 해외 상품화 컨설팅
- 선정 지역 대상 허브 플랫폼, 의료관광 안내센터 연계 클러스터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선정 지역 특화 의료관광 코스 상품 개발 및 판촉 마케팅 지원
- 기타 클러스터 지역 특화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5. 의료관광 일자리 창출

의료기관/유치업체의 의료관광 전문성 향상 및 의료관광을 통한 고용 창출

- 코디네이터 인력풀 플랫폼/안내센터 연계를 통한 중소병원/지자체 인력 지원 시스템 도입
- 의료관광 취업 박람회/설명회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의료관광 전문여행사 고용 연계 실무인력 양성회 사업/서울, 부산, 제주 등 의료관광 현장 개인브로커의 유치업체 고용 연계 사업
- 의료관광업체 대상 의료관광 전문교육 및 설명회 실시
- 해외 의사, 간호사, 에이전시 대상 한국 의료관광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연동)

6. 의료관광 업계 인증 체계(KCI) 구축

의료기관의 외국인 응대 체계 및 유치업체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

- 한/러 비자 상호면제 연계 러시아 의료관광 수용단계 점검
- 러시아 의료관광 의료기관/유치업체 대상 수용단계 점검
- 러시아 의료관광객 대상 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및 만족도 등 조사
-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의료기관 평가기관 연계 공동 서비스 표준 매뉴얼 제작 및 평가 추진

7. 한방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구현

문화융성 정책에 부응하는 한국 고유의 한방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 필요

-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조사 연구
- 전통문화고택체험, 전통스튜디오 등 연계 한방의료관광 패키지 상품화
- 구미주 지역 대상 한식 등 연계 한방의료관광 홍보
- 한방의료 해외 프로모션 및 의료시장 판촉자원화, 지역산품의료관광 이벤트 지원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보건복지부, 서울법원 한국의료관광학회
손혜식 편집위원

친환경 생태관광 자원이 살아 숨 쉬는 곳 세계 유일의 도심 생태관광지(Urban Eco-tourist destination) Eco-tourism의 메카! 서부산으로 오세요



추승우 교수

- 동국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
- 경력 / (사)대한관광경영학회 이사
(사)한국관광연구학회 이사
- 현재 / (사)한국관광호텔업 협회
등급 심사위원
- e-mail : swchoo@deu.ac.kr

필자는 동부산권에 위치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주상복합건물에 살고 있다. 요즘은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해운대를 찾고 있다. 해운대에 위치한 글로벌 체인의 고급호텔, 외국계 법인이 운영하는 아쿠아리움, 해안선을 따라 들어선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들, 부산의 명물인 다이아몬드 브릿지, 달맞이 고개에 가득 들어선 유명 체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 과연 이러한 자원들이 부산을 대표하고 부산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 여메니티(amenities)들이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다.

매번 부산 시장의 책임자와 국회의원이 바뀔 때마다 부산은 이제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새롭게 할 때가 되었다면서, 새롭게 개발되는 관광개발 프로젝트들은 한결같이 새로이 건축되는 숙박시설들과 멤버십 골프장, 오토 투어 등과 같은 고비용의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다. 동부산권역에 현재 신규 추진 중인 숙박시설들만 따져 보아도 광안리 지역에 영국계 럭셔리호텔 브랜드 '랭햄호텔'(950실, 2016년 준공 예정), 해운대 센텀지역에 일본계 자본의 '세가사미 부산'(특급호텔 300실, 비즈니스 호텔 470실, 2018년 준공 예정), 수영만 오토경기장에 예정된 '아이파크 마리나'(325실), 동부산 관광단지내 지난 3월 기공식을 시작한 힐튼부산호텔(306실)과 아난티 펜트하우스(99실) 등의 자칭 6성급 호텔을 모방하는 초특급 호텔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있다.¹⁾ 이제 부산 동부산권역은 전 세계 호텔 브랜드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부산해운대일대특급호텔추진현황 (단위:억원)

호텔명	사업비	규모	완공	사업자
힐튼부산호텔	6000	특급호텔 306실, 콘도 99실	2016년	에머슨퍼시픽 그룹
랭햄호텔	7000	특급호텔 600실, 비즈니스호텔 400실	2017년	지엠티건설
센텀원	3900	특급호텔 300실, 비즈니스호텔 470실	2018년	세가사미부산
아이파크 마리나	1623	호텔 325실	2018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해운대 관광리조트	2조	특급호텔(중국인용) 561실, 특급호텔 296실	2018년	엘스티PPV

그런 반면 같은 부산의 서부산권역 관광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외래관광객들에게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관광이미지는 무엇인가? 서부산권을 찾는 외래관광객 수는 얼마나 될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 보았을 때 부산을 찾는 외래관광객들이 서부산권의 관광자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매년 시행되는 부산관광통계조사(서부산권역 방문객 비율 3.5% : 동부산권역 방문객 비율 51.2%)를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 정말 서부산권역에는 제대로 된 관광자원과 매력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단언컨대, 부산의 서부산권역은 친환경 생태관광자원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출처: 한국경제, 2014, 03, 25

우선 거가대교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가덕도는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큰 섬(영도섬의 1.6배의 크기)으로 최고봉인 연대봉은 해발 459.4m 높이의 산악자원과 해안선이 36km에 달하는 수려한 해상관광자원의 잠재된 보고(寶庫)라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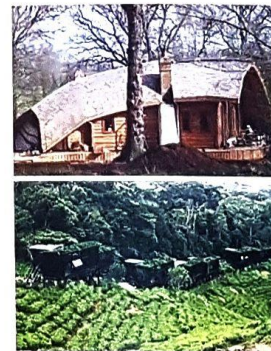
가덕도
우도생태공원

이와 더불어 맥도생태공원(면적 2,54 km², 길이 6.90km), 삼락생태공원(면적 4,72km², 길이 7.04km), 을숙도생태공원(면적 3.52km², 길이 4.50km), 대저생태공원(면적 2,66km², 길이 7.62km), 화명생태공원(면적 7,74km², 길이 2.54km) 등, 이들 생태공원의 면적을 전부 합치면 21,18km²로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5km²)의 7배가 넘는 면적의 친환경 친수공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친환경 자원을 관광자원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재도 많은 인근 주민들의 휴식처, 산책로, 피크닉, 체육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런 천혜의 자원을 그냥 동네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할애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부산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부산의 관광 여메니티(amenities)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동부산권역에 치중되어 있는 외래관광객 수요를 서부산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친환경 친수공간인 생태공원을 서부산 관광상품의 랜드마크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래관광객들로 하여금 생태공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하고, 이 곳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동부산권역에 세계 유수의 체인호텔들이 즐비하다면, 서부산권역에는 친환경(eco-friendly) 숙박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일명 에코로짓(Eco + Lodge)로 통하는 친환경 숙소는 환경을 뜻하는 '에코'와 숙소를 뜻하는 '로짓'이 합쳐진 말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의 에코로짓은 대개 사용되는 에너지의 종류와 에너지 소비 형태 및 관리, 친환경적인 장소 선정과 건축재료의 사용,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화 배출관리, 지속적인 환경수치 및 법규의 존재여부와 실행, 친환경적인 음식재료 선정과 구매활동, 이용객이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프로그램의 여부 등의 조건이 요구된다. 이러한 친환경 숙소 형태들은 많은 생태관광의 선진국들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찾는 생태관광객의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환경친화적 숙소에서 머물면서 다양한 생태관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서부산권은 세계 최초의 '도심 속의 생태관광지'로서 그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친환경 골프장의 조성도 좋은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우선 낙동강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산권 생태공원의 지리적 여건과 아주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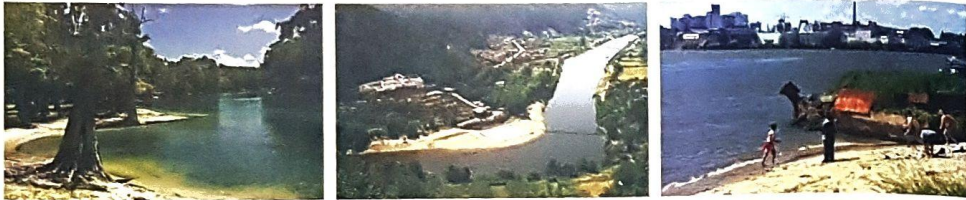


사한 '의령친환경 골프장'을 그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의령친환경 골프장의 지리적 위치도 진주 남강의 물줄기를 따라 조성되어 있다. 2008년 7월 개장한 의령 친환경 골프장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골프장 사업으로 무농약 관리를 시행하는 대신 인근 주민 매년 3500명(연인원)을 제초인력으로 뽑아 인건비로 약 1억 5천만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였고, 지역 출신의 젊은이 21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약 3억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등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생태환경 보전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아라카와강 살리기 운동의 차원에서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골프장이 조성되었다.



의령친환경 골프장
"의령친환경 골프장은 진주 남강의 물줄기를 따라 조성되어 있다.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생태환경 보전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아라카와강 살리기 운동의 차원에서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골프장이 조성되었다."

이외에도 강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관광 어메니티(amenities)들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물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River beach, 낚시터, 등 바라보는 강에서 벗어나 강에서 체험하고 강을 활용하여 관광수입을 만들어 내는 형태의 능동적 관광수용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생태관광(eco-touris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생태관광의 정의를 살펴보면 환경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 방식 또는 여행문화(두산세계대백과)라고 정의하였고, The Ecotourism Society(1991)에서는 생태관광을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개선시키는 자연지역을 가는 책임 있는 여행(The Ecotourism Society, 1991) - Ecotourism is a responsible travel to natural areas which conserve the environment and improve the welfare of local people - 이라고 정의하였다.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생태관광의 가장 첫 번째 목적 중 하나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다.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자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임을 깨달아야 한다. 생태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생태환경에 서식하는 각종 생명체, 토양, 수목 등을 더 나은 환경에서 그 개체수를 늘려 나가고, 더 좋은 토양으로 개선시키며, 더 깨끗한 수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를 악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태관광"이라는 개념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생태환경을 보전하여 그 보전된 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 시켜 관광객들이 생태관광자원을 통해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생태관광산업을 통하여 관광수입을 만들어 내어 이를 다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관광경제를 이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서부산권역이 무한한 생태관광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도심 속 생태관광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단체들과 관련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끝나가는 여름이 아쉽다면 롯데호텔부산 '2014 레이트 서머 패키지'

롯데호텔부산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늦여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2014 레이트 서머(Late Summer) 패키지'를 선보인다.

19만원부터 마련된 '웨이트, 서머(Wait, Summer) 패키지'는 디럭스 객실에서의 1박과 제이에스티나 미니 향수, 제올로지 다이아몬드 겔 마스크, 델리카한스 아이스크림 2개로 구성된다. '여름의 끝을 잡고 패키지'는 21만원부터로 디럭스 객실 1박과 라세느 조식 2인, 롯데시네마 관람권 2매가 제공된다. 24만원부터 제공되는 '어게인, 서머(Again, Summer) 패키지'는 디럭스 패밀리 객실과 롯데시네마 관람권 3매 또는 모래놀이 세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기 패키지 모두 세금과 봉사료 별도다.

각 패키지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항목도 마련했다. 1만5천원을 더하면 김해 롯데워터파크 이용권 1매가 제공되며 2인 기준으로 3만원 추가시 하이디럭스 객실, 7만원 추가시 클럽디럭스 객실로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한편 롯데호텔부산은 지난 7월 1일부터 부산역 2층 여행센터에 '롯데호텔부산 레일데스크'를 마련하여 투숙객을 대상으로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실당 수화물 2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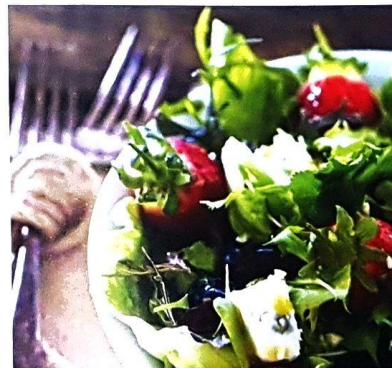
위탁하여 호텔 로비 1층에 위치한 벨 데스크로 운반해주는 해당 서비스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위탁한 수화물은 접수 시간으로부터 2~3시간 후에 수령할 수 있다.

롯데호텔부산의 레일데스크를 이용하면 호텔 체크인 전 부산 시내를 관광하거나 김해 롯데워터파크, 해운대 등을 방문하기에도 부담이 없다. 부산역에서 김해 롯데워터파크 또는 해운대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따로 교통수단을 준비할 필요 없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 보다 편하게 부산의 늦여름을 즐길 수 있다.

문의 및 예약: 롯데호텔부산 051-810-1100



해운대그랜드호텔 티파니 컬러푸드 프로모션



해운대그랜드호텔 1층에 위치한 뷔페레스토랑 티파니에서 9월 한 달간 스트레스 해소의 묘약인 컬러푸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미국 암협회에서 하루에 5가지 이상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예방 및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다.

이번 컬러푸드 프로모션의 주요 메뉴로는 장마구이, 견과류와 치즈를 감싼 호박롤, 브로컬리 샐러드, 돼지고기로 속을 채운 가지 튀김, 블루베리 샐러드, 문어 샐러드 등이다.

(뷔페 가격 성인 1인 주말 중식 - 53,000원

주말 석식 - 63,000원

주중 석식 - 59,000원 / 세금, 봉사료 포함)

문의 : 뷔페레스토랑 [티파니] 051)740-0611

일상탈출을 꿈꾸며 한 번은 가고 싶었던 곳들..
구석구석 놀라운 대한민국과 세계의 명소를
찾아 떠나는 풍격 여행...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2014년 가을여행 하이라이트

여행 일자	여행 지역	여행비
9월14일(일) 당일	부산-오대산 상원사-월정사-평창 메밀꽃 축제-부산	어른 1인당 5만5천원 어린이 1인당 5만원
9월21일(일) 당일	부산-영광 불갑사 꽃무릇축제-고창학원농장 메밀꽃축제-고창 선운사 꽃무릇축제와 도솔암-부산	어른 1인당 4만9천원 어린이 1인당 4만4천원
9월28일(일) 당일	부산-세종시 호수공원(음악분수, 세종도서관)-국립공주박물관-베아트리카 수목원-비암사-부산	어른 1인당 5만5천원 어린이 1인당 5만원
10월2일(목) ~9일(목)	캐나다 일주 7박 8일 부산-캐나다 토론토-나이아가라-킹스톤 오타와-몬트리올-퀘벡-밴프 레이크 루이스-캘거리-부산	어른 1인당 367만원 어린이 1인당 330만원
10월3일(금) ~5일(일) 2박3일	부산-강화도 갑곶돈대-전등사-고려궁자-용흥궁-성공회 강화성당-강화고인돌-석모도-보문사-경복궁-삼성 리움미술관-남대문-인사동과 청계천-이침고교수목원-남이섬-양평 용문사-부산	어른 1인당 27만9천원 어린이 1인당 27만4천원
10월11일(토) 당일	부산-울진 불영사 산사음악회-호미곶 등대박물관-구룡포-부산	어른 1인당 4만원 어린이 1인당 3만5천원
10월18일(토) 당일	부산-안동 하회마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경암정사-부용대-옥연정사-윤필암-대승사-예천 용문사-부산	어른 1인당 4만원 어린이 1인당 3만5천원
10월25일(토) ~26일(일) 1박2일	부산-진도 울돌목-전통공예관-운림산방-웅장산성-목포 고히도-유달산-근대역사관-삼학도와 이남영공원-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갯바위-벌교 보성여관-부산	어른 1인당 19만9천원 어린이 1인당 19만4천원
10월31일(금) 당일	부산-비슬산 유가사-현동 석빙고-도동서원-고천원비-가야왕릉 전시장과 대가야박물관-개실마을-합천 함백루와 연호사	어른 1인당 4만5천원 어린이 1인당 4만원
10월31일(금) ~11월7일(금)	인도문화탐방 7박8일 부산-홍콩-인도 델리-바라나시-카쥬라호-오르차-아그라-타지마할-페테푸르시크리-자이푸르-델리-인천-부산	어른 1인당 259만원 어린이 1인당 233만원

*상기 일정은 여행약관에 따라 현지사정 및 참가신청 인원 미달시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함사항 항공을 이용할 경우 국내/국제선 항공료, 관광버스비(44인승 기준), 2인1실 숙박비, 전일정 식사비, 전일정 입장료, 케이블카비, 선박비, 자료집, 기사봉사료, 해설사비

불포함사항 여행자보험, 개인경비

★ 여행세부일정안내 : 인터넷 다음카페 (Daum Cafe) 박물관을찾는사람들 답사일정 참조
★ 참가문의: 박물관을찾는사람들 Tel. 051)463-9009 / 대륙항공여행사 051)463-0034

합리적인 분양가 + 안정적인 수익률 놓칠 수 없는 자리! 놓칠 수 없는 기회!



대표이사 / 회장 이병욱

최상의 입지가 최고의 경쟁력을 만듭니다.

사직야구장 바로 앞에 위치하여 교통, 전망, 비전, 공간, 환경...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수익형 테라스 상가 입니다

사직야구장 바로 앞 최고 상권 중 최요지에 위치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일 5만 여명의 유동인구가 연중 넘치는 근린상권과 광역상권을 모두 갖춘 곳으로 365일 대단위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반경 1km 이내 5만여 세대 대규모 배후수요입지가 위치합니다.

LG이, 쌍용에, 대우빌드마크, 롯데캐슬 등 대형 고급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변 직장인과 배후수요층의 쇼핑, 외식, 여가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 18개 초·중·고와 부산교대가 위치합니다.

항정 주위 1.5km반경 이내 7개 초등학교(사직초, 예원초, 창신초, 금강초, 미림초, 가락초, 남문초), 6개 중학교(은천중, 사직중, 내성중, 여명중, 거제중, 거성중), 5개 고등학교(사직고, 동인고, 사직여고, 이사벨고, 계성여성) 약 12,760명의 학생들과 부산국제사립대학, 영문 캠퍼스,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GIANTS PARK

지이언츠파크



분양 문의 T. 051) 501-4100



